

여론조사꽃 제15차 정례여론조사 ARS+WEB 보고서

www.flowerresearch.com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 꽃

정레이론조사

ARS +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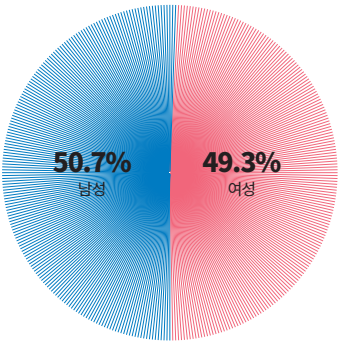
보고서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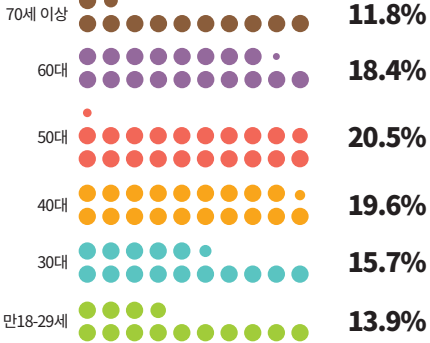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2022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6.2% [총 통화시도 16,336명]
조사기간	2022년 11월 13일 ~ 11월 14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4	100.0%	1,014	100.0%	1.00
성별		남성	514	50.7	503	49.6	0.98
		여성	500	49.3	511	50.4	1.02
연령		만18-29세	141	13.9	172	17.0	1.22
		30대	159	15.7	151	14.9	0.95
		40대	199	19.6	186	18.3	0.93
		50대	208	20.5	197	19.4	0.95
		60대	187	18.4	169	16.7	0.90
		70세 이상	120	11.8	139	13.7	1.16
		서울	212	20.9	191	18.8	0.90
지역		인천·경기	327	32.2	322	31.8	0.98
		대전·세종·충청	105	10.4	107	10.6	1.02
		광주·전라	97	9.6	98	9.7	1.01
		대구·경북	92	9.1	99	9.8	1.08
		부산·울산·경남	137	13.5	152	15.0	1.11
		강원·제주	44	4.3	45	4.4	1.02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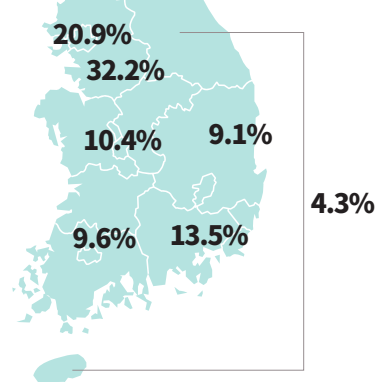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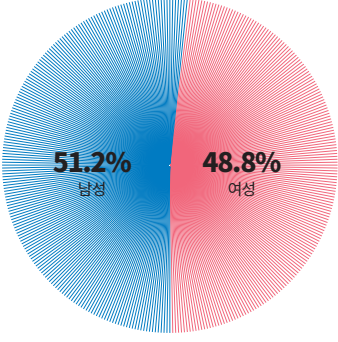


WEB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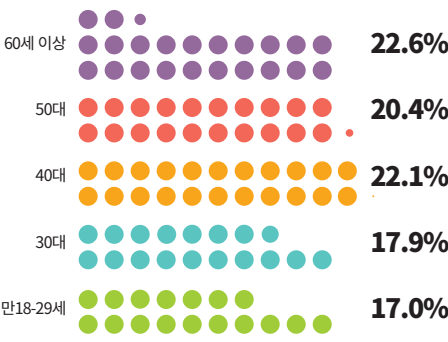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67명
표본오차	±3.0%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2022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네티포인트 온라인 회원 가입 등으로 구축된 온라인 패널 중 성·연령대·지역 별 무작위 추출 실시한 인터넷 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86.4% [총 연결시도 1,235명]
조사기간	2022년 11월 10일 ~ 11월 1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67	100.0%	1,067	100.0%	1.00
성별		남성	546	51.2	529	49.6	0.97
		여성	521	48.8	538	50.4	1.03
연령		만18-29세	181	17.0	180	16.9	0.99
		30대	191	17.9	160	15.0	0.84
		40대	236	22.1	196	18.4	0.83
		50대	218	20.4	208	19.5	0.95
		60세 이상	241	22.6	323	30.3	1.34
지역		서울	233	21.8	200	18.7	0.86
		인천·경기	347	32.5	340	31.9	0.98
		대전·세종·충청	100	9.4	113	10.6	1.13
		광주·전라	96	9.0	105	9.8	1.09
		대구·경북	98	9.2	104	9.7	1.06
		부산·울산·경남	154	14.4	159	14.9	1.03
		강원·제주	39	3.7	46	4.3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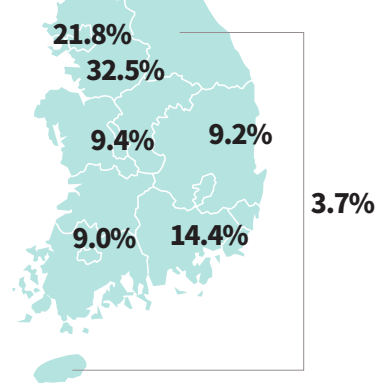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ARS +WEB**

보고서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국정지표, 국정현안, 체감지표

ARS+WEB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국정 운영 평가

국정현안 차기 총선 예상

ARS **국정현안** 대통령의 이미지
현정부 운영 비교 평가 1
현정부 운영 비교 평가 2
대통령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
여당과 야당의 역할

WEB **체감지표** 대통령호감도

10.29참사 원인: 주최자 없는 행사
원인: 안전대책
원인: 경찰 인력이 집중된 곳
원인: 마약 단속에 집중된 경력
원인: 촛불집회
대응: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조치
대응: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대응: 정부의 대처
대응: 대통령 담화 형식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
대응: 추모 열기의 의도적 축소 의혹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참사 대응
대응: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
대응: 희생자 명단 공개

여론조사 꽃은 '이태원 참사'를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10.29 참사'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꽃, 11월의 세 번째 리포트는

정당지지도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ARS와 WEB조사 결과 보고 입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 운영 평가, 대통령의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10.29참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질문하고
그 응답내용을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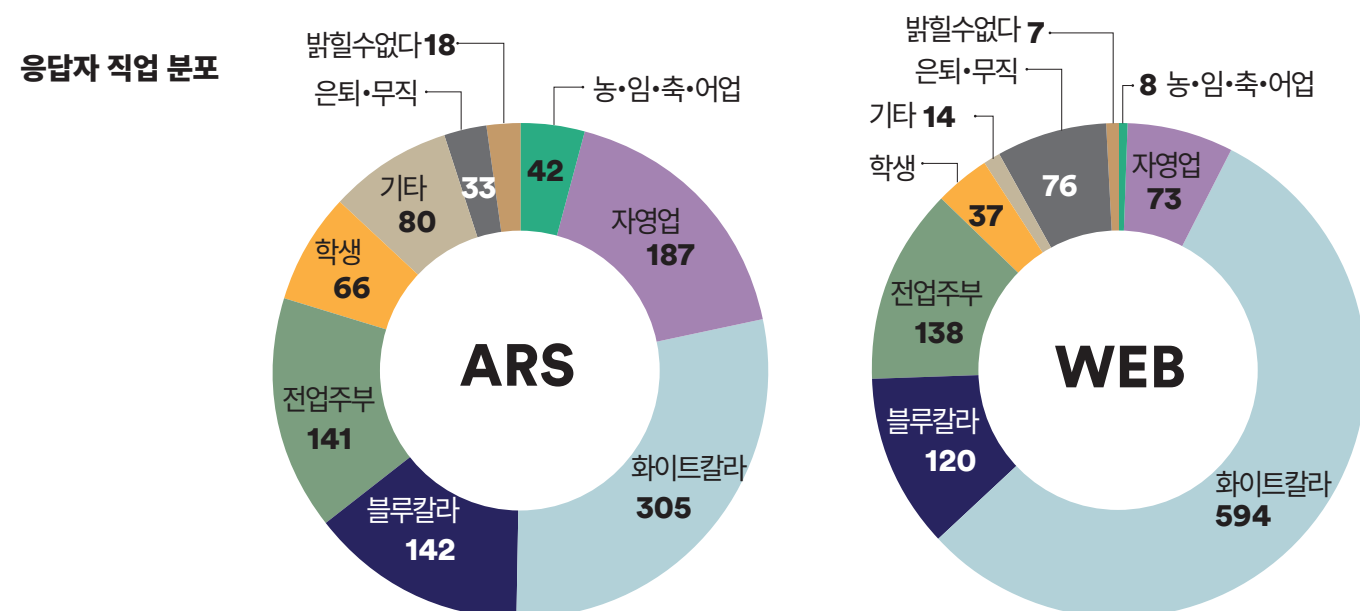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ARS +WEB**

보고서

- ARS+WEB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 국정현안** 차기 총선 예상
- ARS 국정현안** 대통령의 이미지
현정부 운영 비교 평가 1
현정부 운영 비교 평가 2
대통령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
여당과 야당의 역할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평가, 2024년 실시될 총선에 대한 질문을 ARS와 WEB 조사로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조사 방식과 응답자 특성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ARS 조사에서는 취임 6개월에 접어든 대통령의 이미지를 묻고, 윤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난 정부들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가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과 야당과 여당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응답결과를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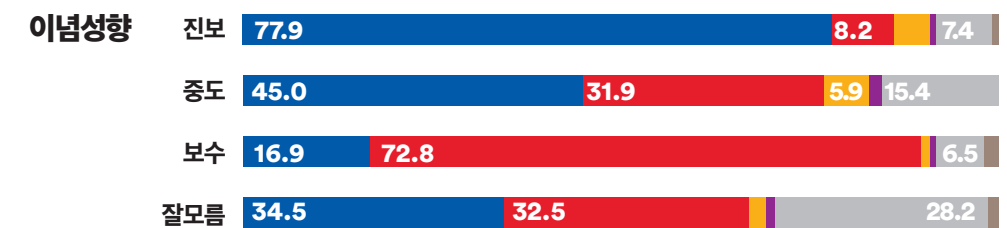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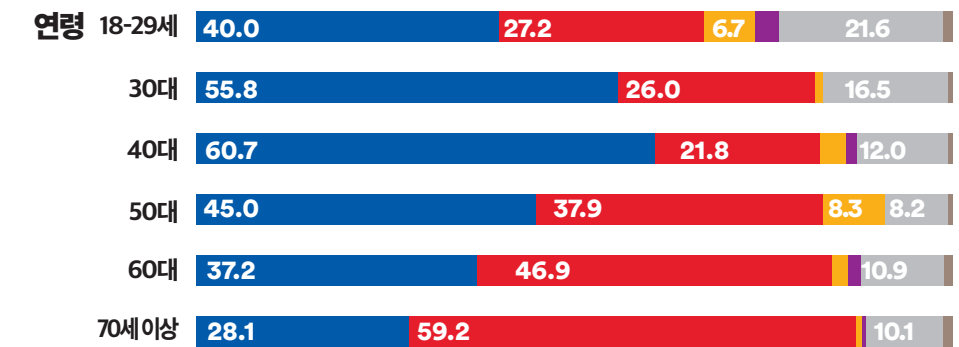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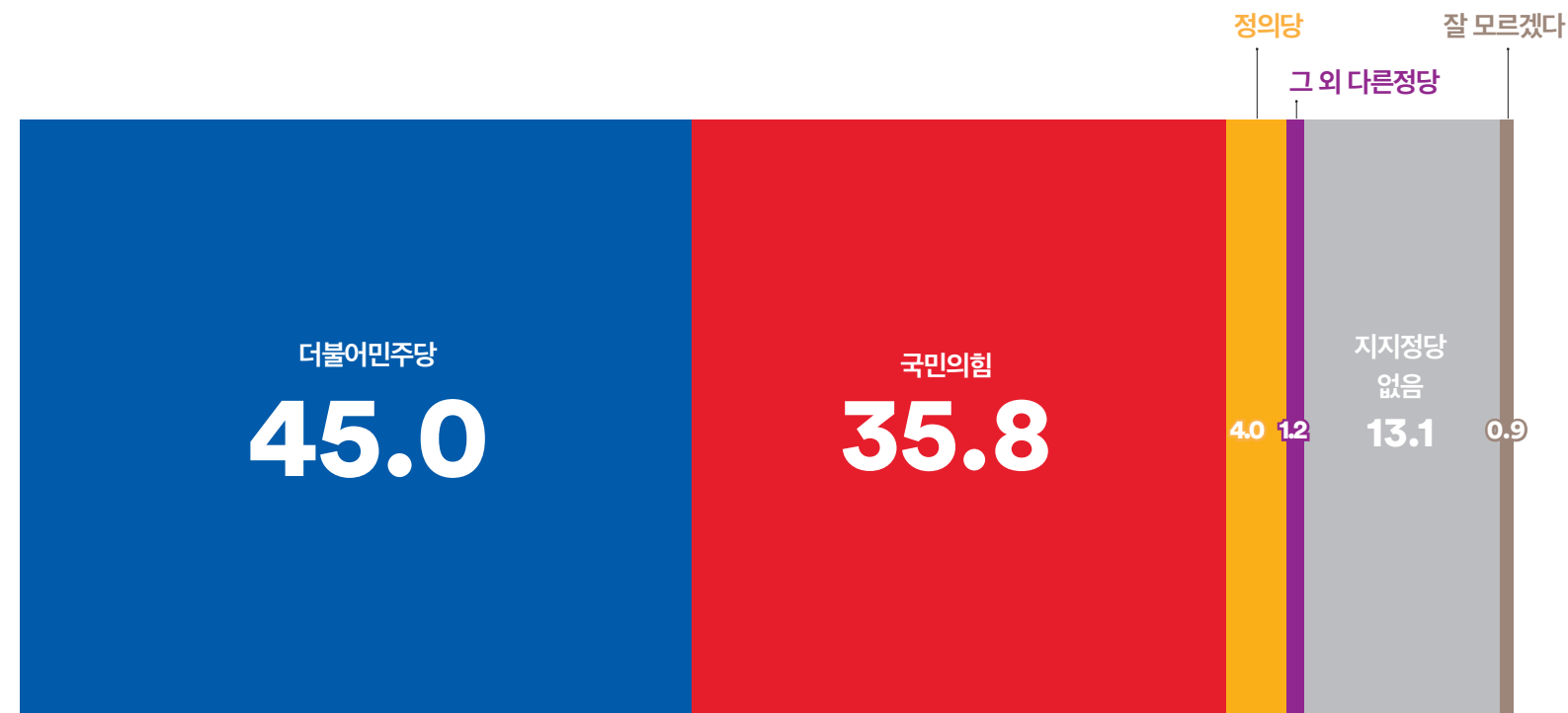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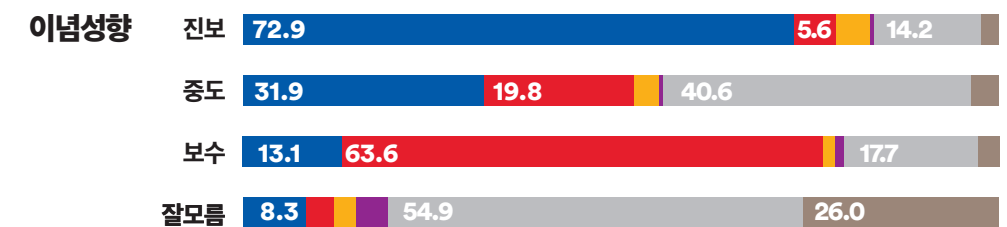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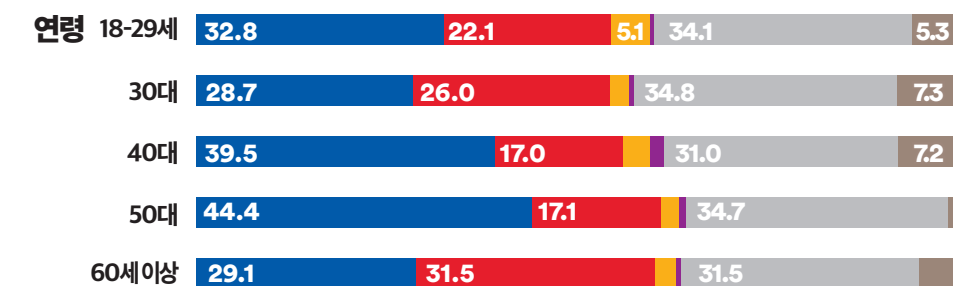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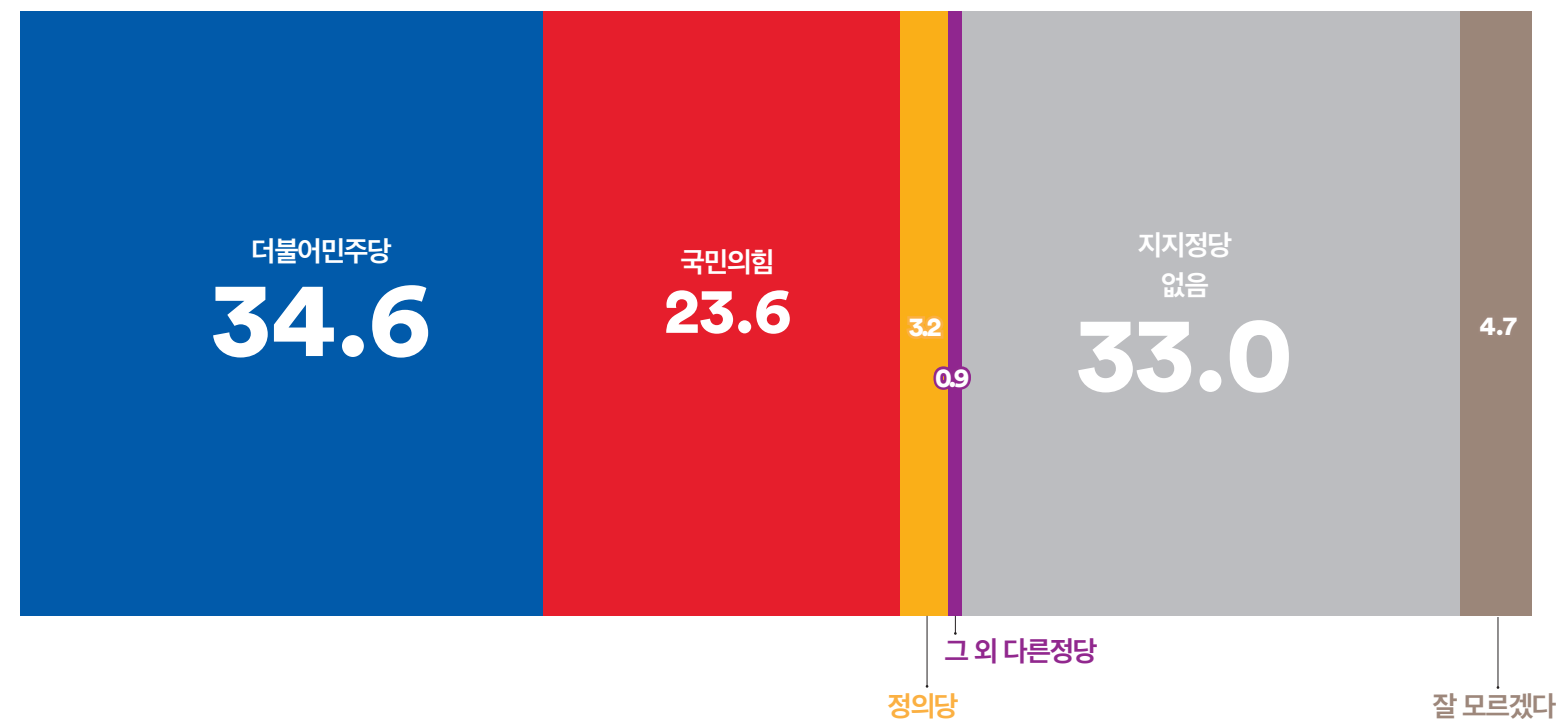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WEB



ARS와 WEB 조사 결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지난 ARS 조사(11월 6~7일) 대비 더불어민주당 3.0%p 감소, 국민의힘 3.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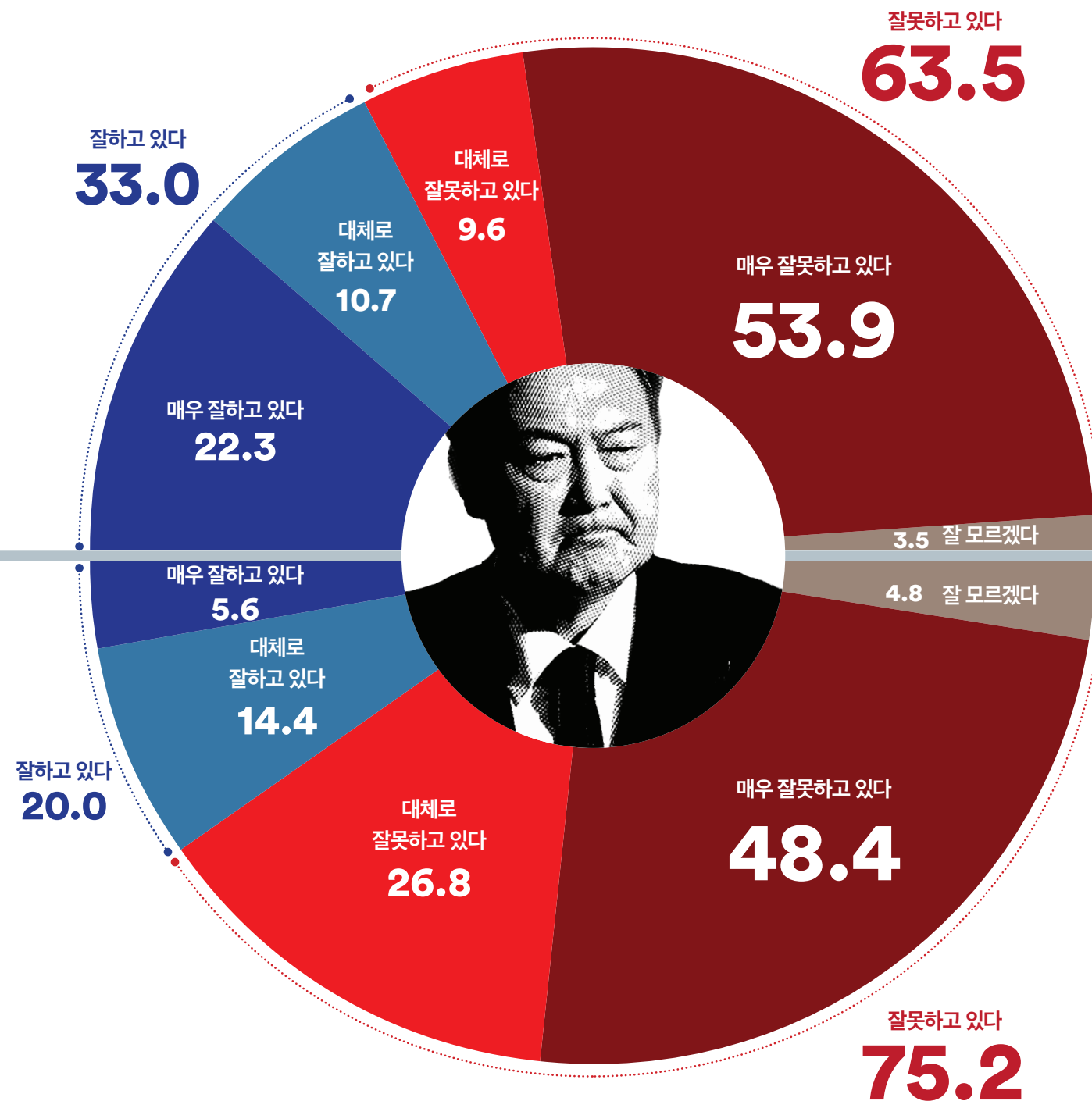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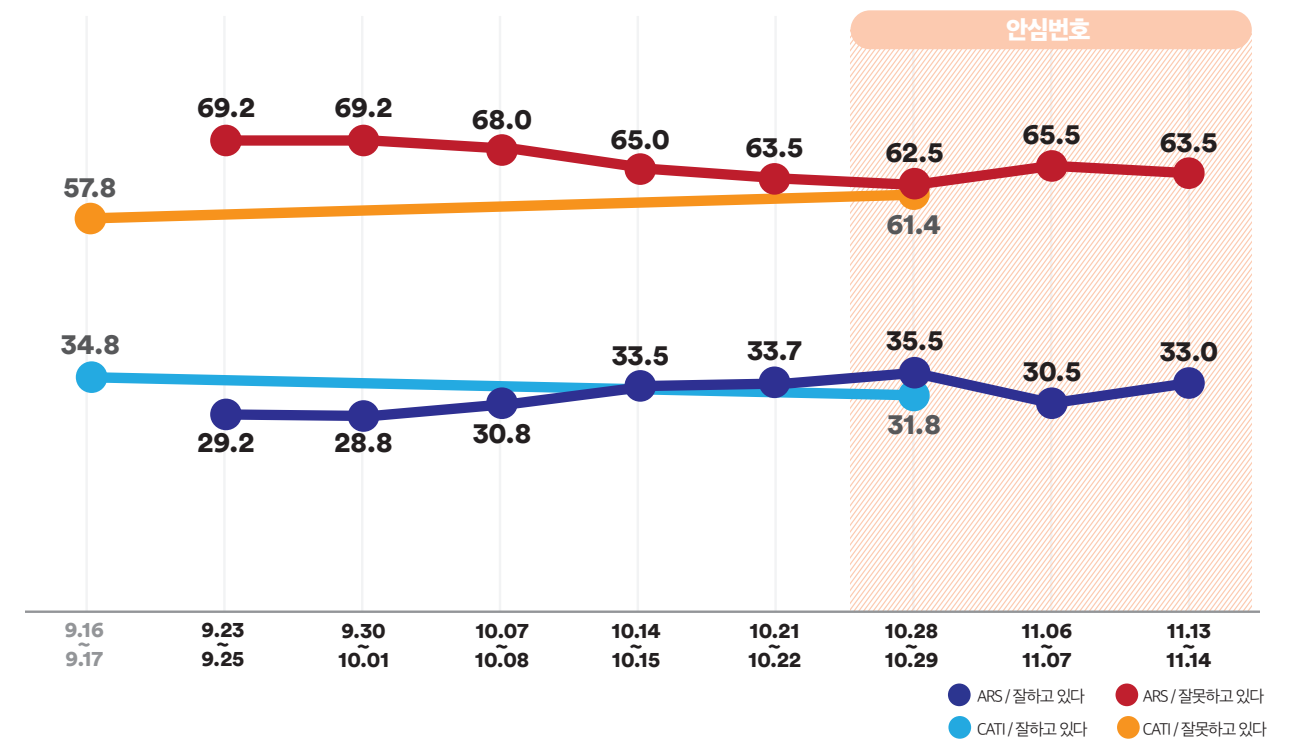
ARS

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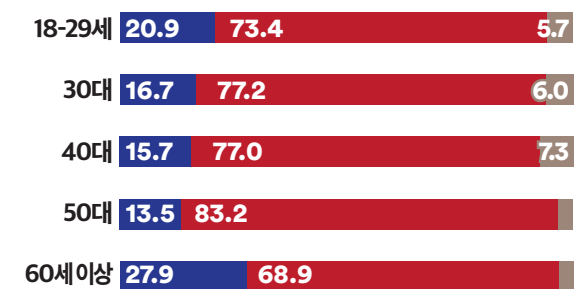


ARS와 WEB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우세
지난 ARS 조사(11월 6~7일) 대비 긍정 2.5%p 증가, 부정 2.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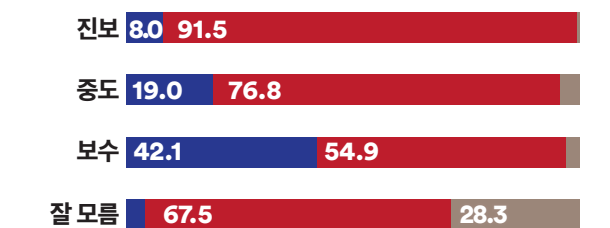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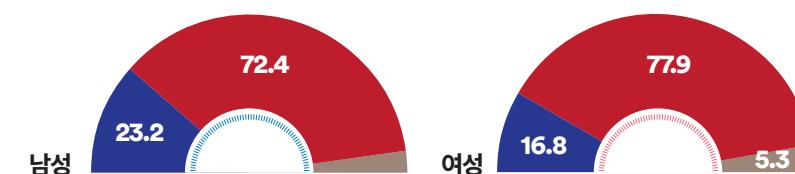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성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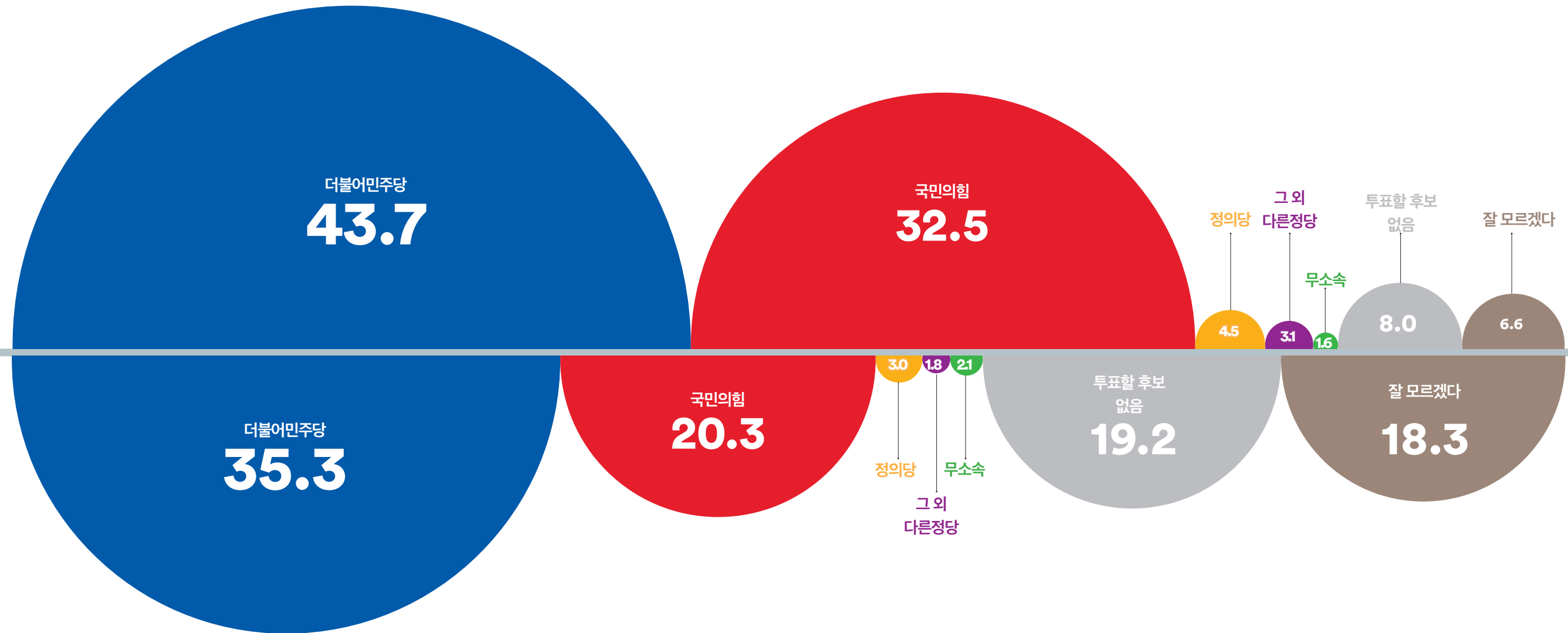
체감지표

차기 총선 예상

Q. 차기 총선이 2024년 4월에 실시됩니다. 다음 중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으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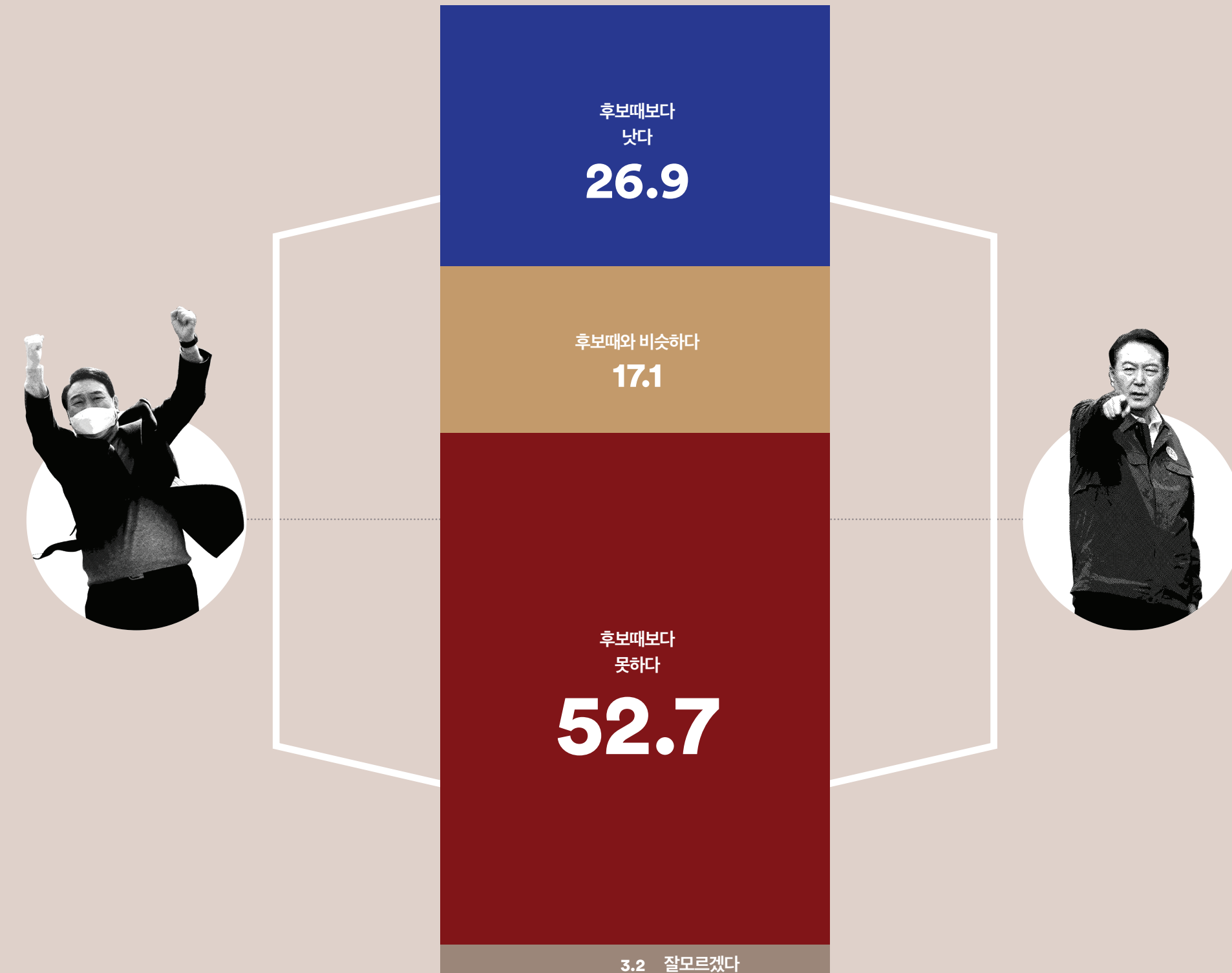
WEB



국정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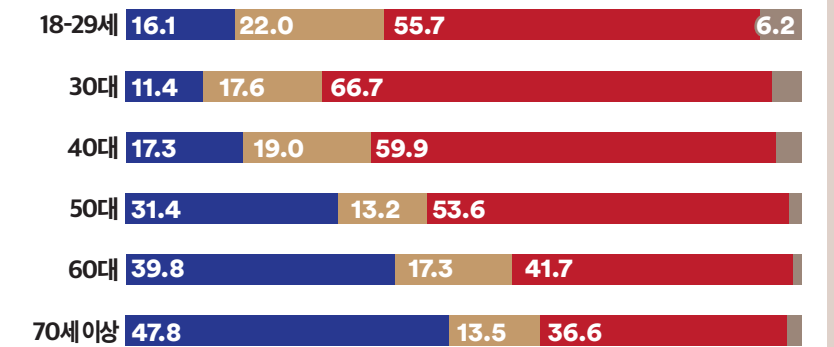
대통령의 이미지

Q.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전 대선 후보시절과 지금의 윤대통령을 비교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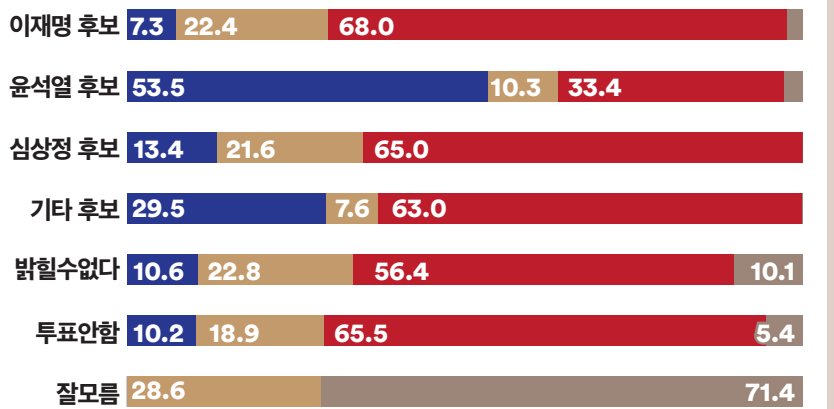


TK, PK,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는 '후보때 보다 못하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후보 때보다 낮다'는 응답은 67.9%
 지난 대선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33.4%가 '후보 때보다 못하다'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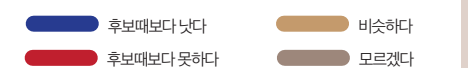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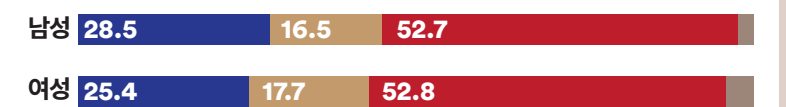
연령



지난대선 투표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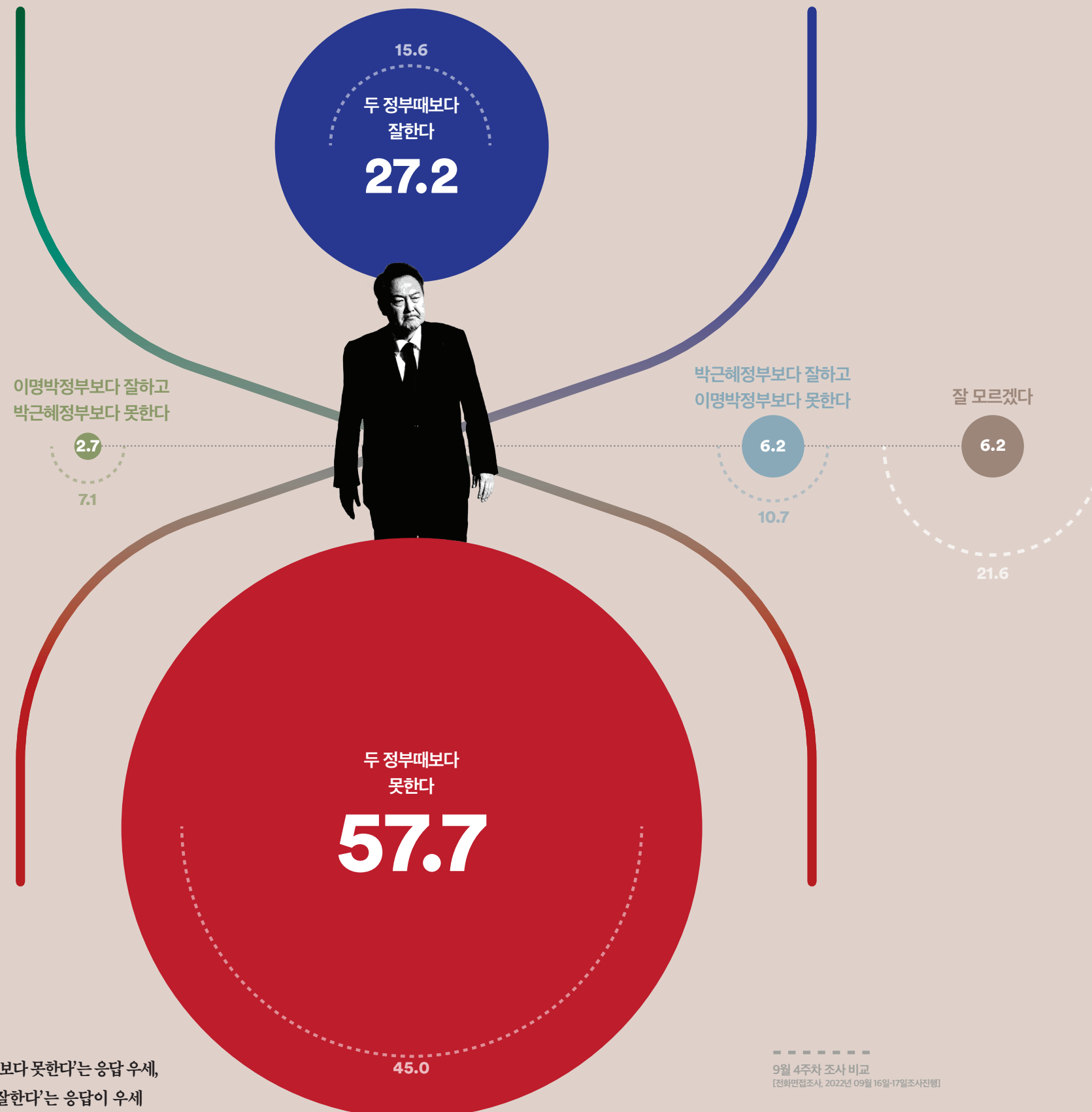
성별



국정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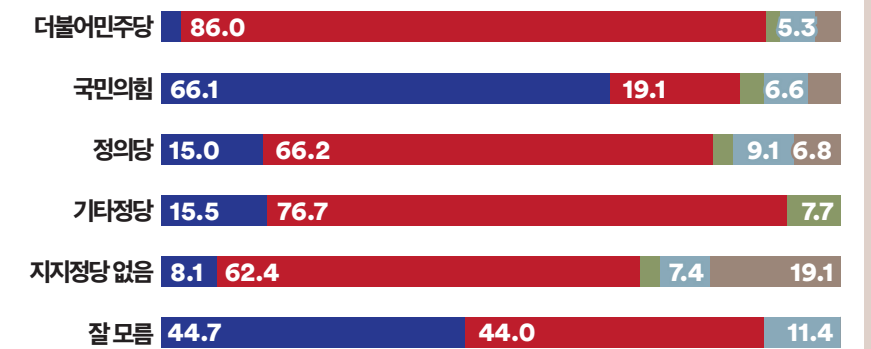
현 정부 운영 비교 평가 1

Q. 보수정부라 일컬어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자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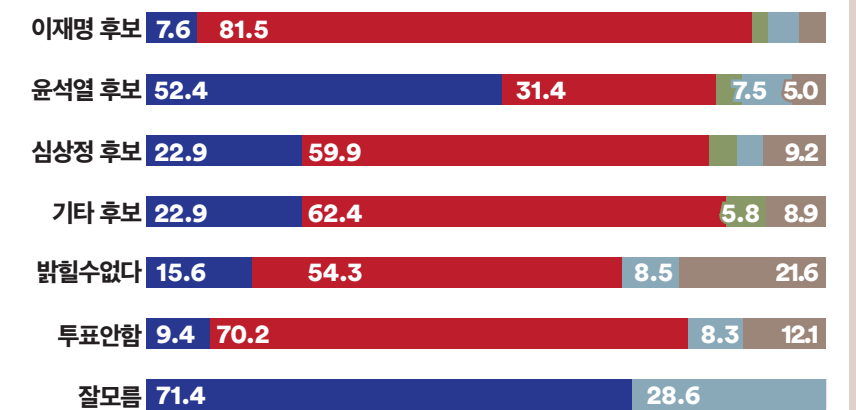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두 정부보다 못한다'는 응답 우세, 보수층에서는 '두 정부보다 잘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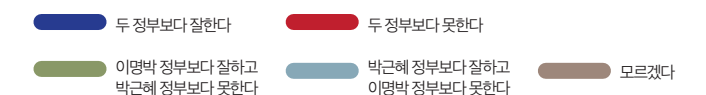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지난대선 투표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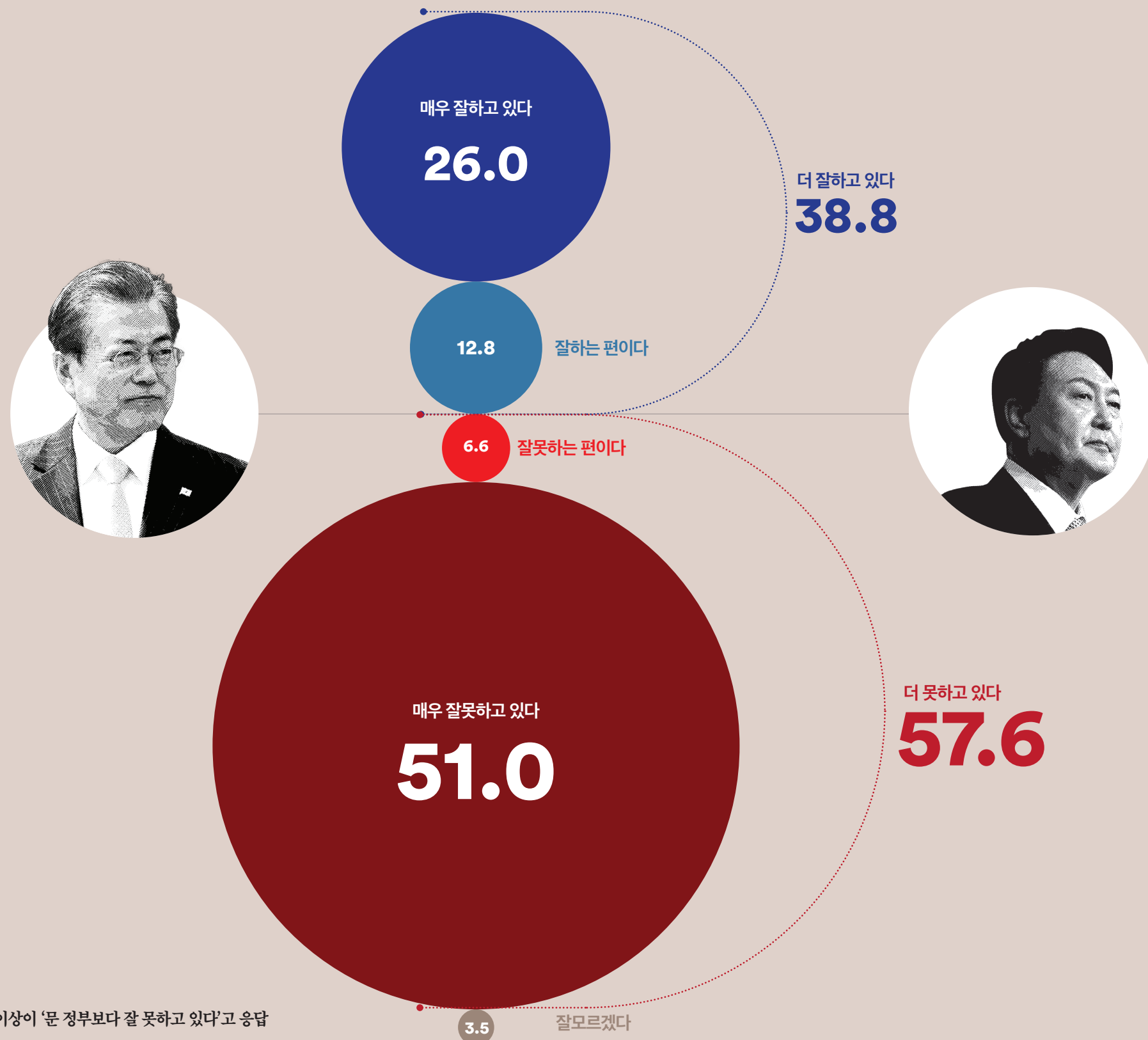
성별



국정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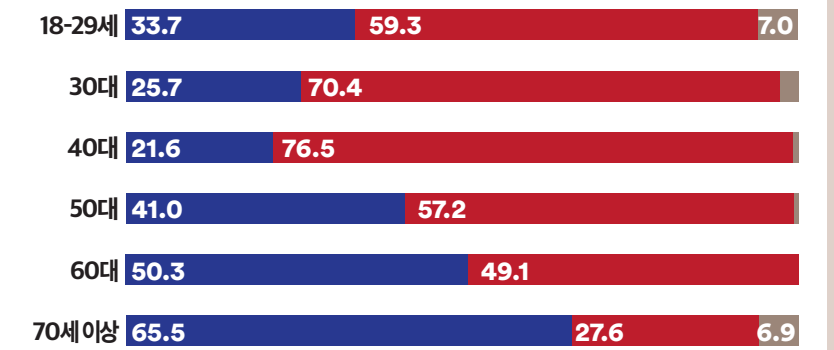
현 정부 운영 비교 평가 2

Q.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보자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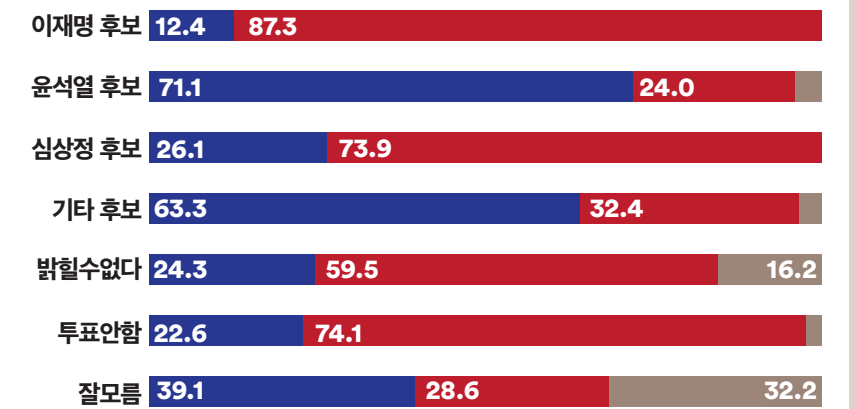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이 '문 정부보다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에서,
연령대별로는 18세~50대 이하 연령대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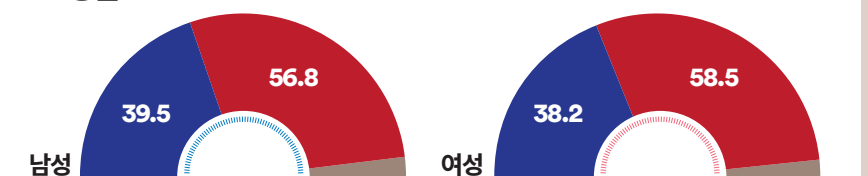
연령



지난대선 투표후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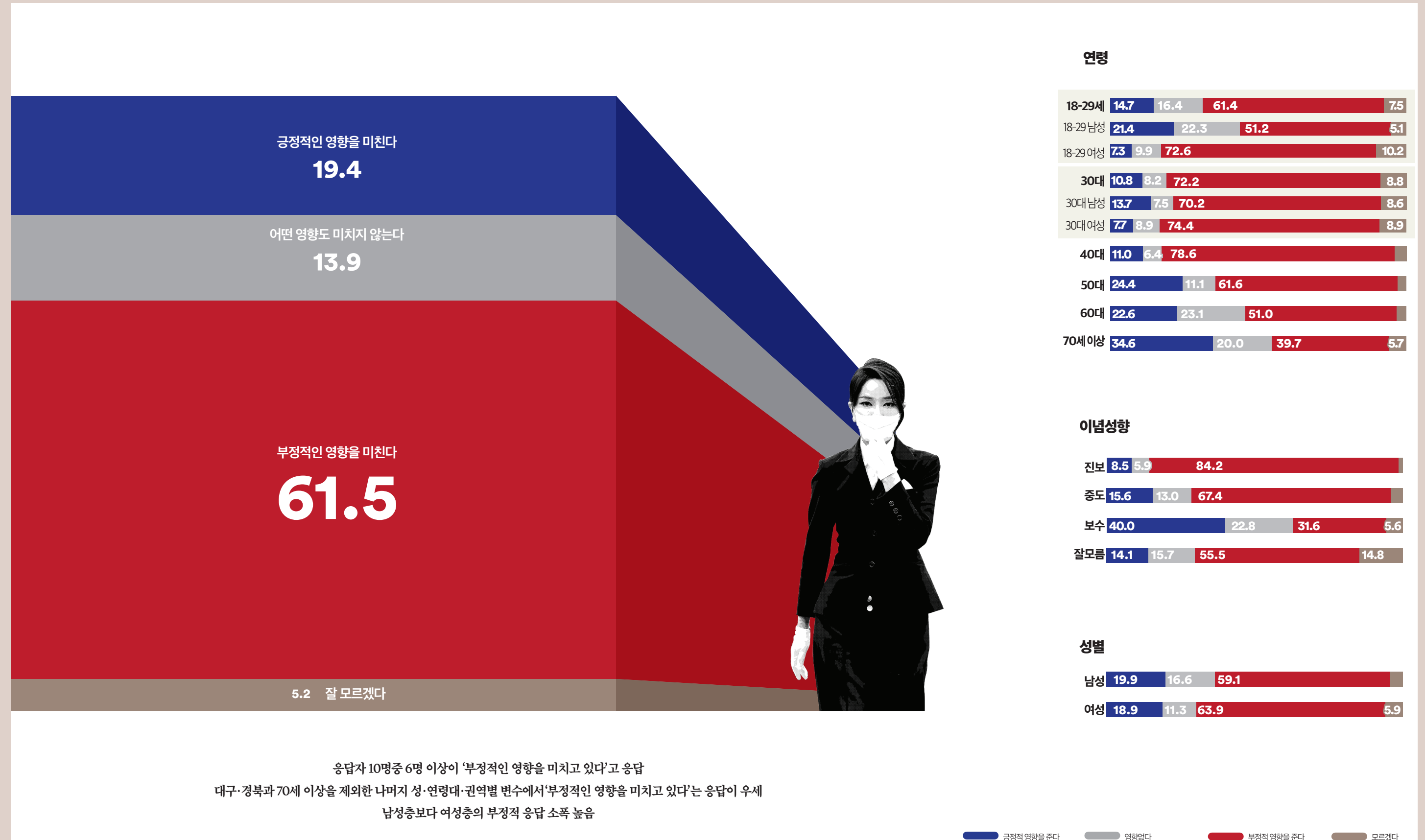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모르겠다

국정현안

대통령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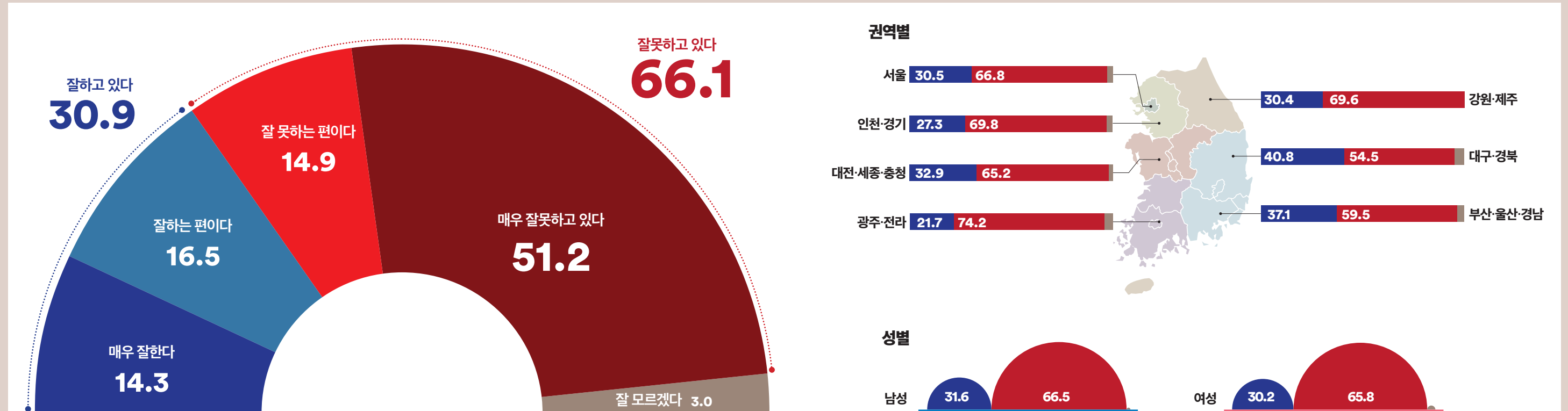
Q.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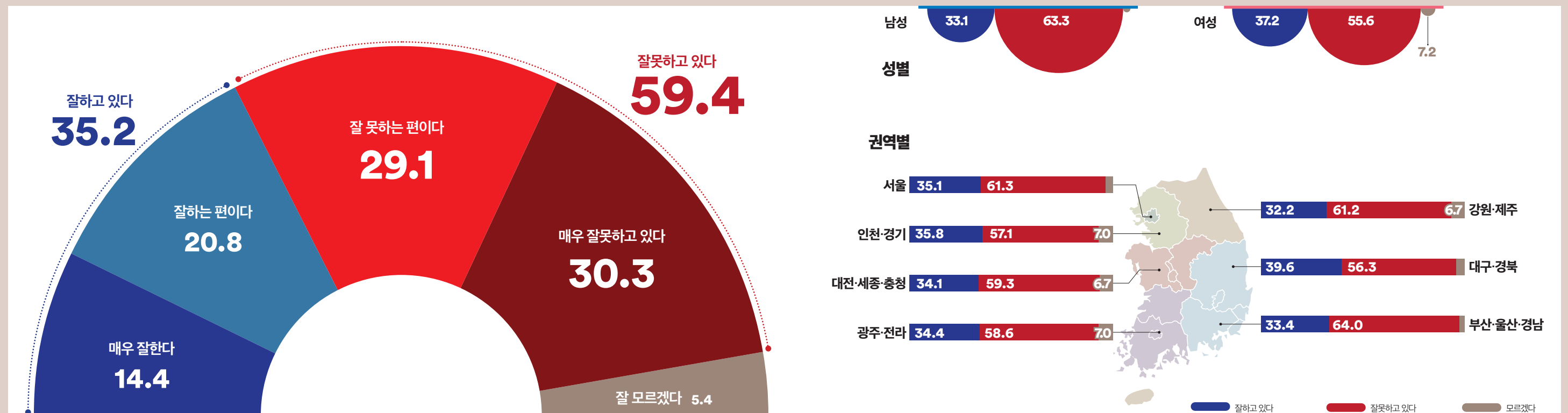
국정현안

여당과 야당의 역할

Q.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WEB

보고서

체감지표 대통령호감도

10.29참사 원인: 주최자 없는 행사

원인: 안전대책

원인: 경찰 인력이 집중된 곳

원인: 마약 단속에 집중된 경력

원인: 촛불집회

대응: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조치

대응: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대응: 정부의 대처

대응: 대통령 담화 형식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

대응: 추모 열기의 의도적 축소 의혹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참사 대응

대응: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

대응: 희생자 명단 공개

여론조사 꽃은 '이태원 참사'를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10.29 참사'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29참사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WEB조사로 물었습니다.

10.29참사의 원인이라고 이야기 되는 여러 문제들과 정부가 참사에 대해 체계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 묻고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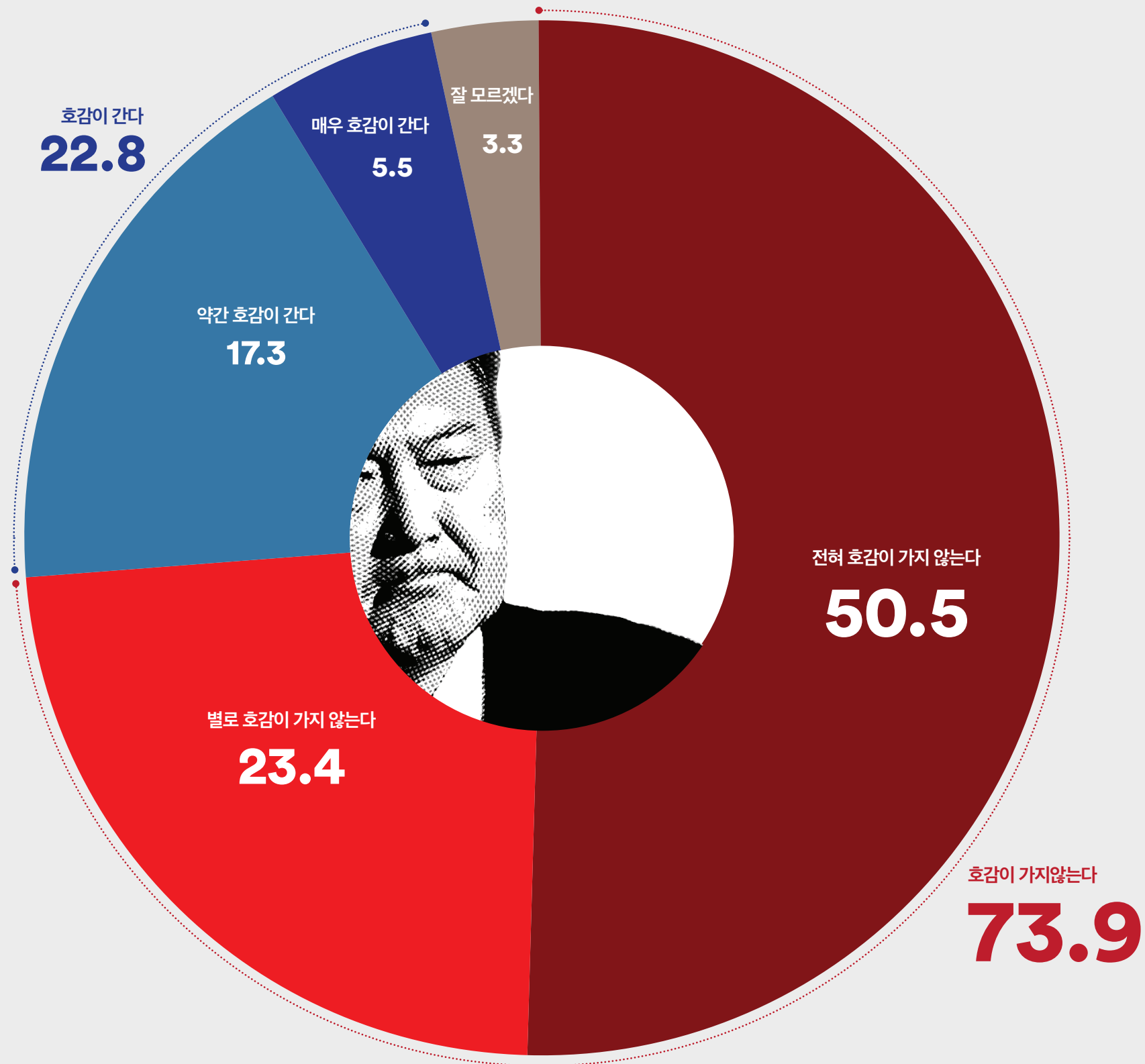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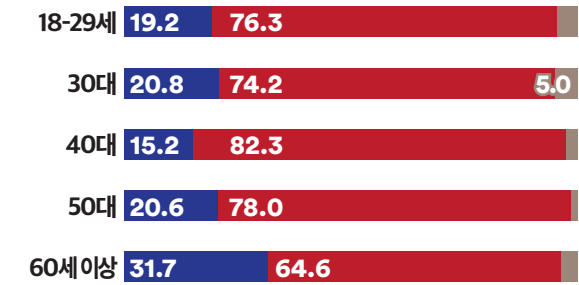
체감 지표

대통령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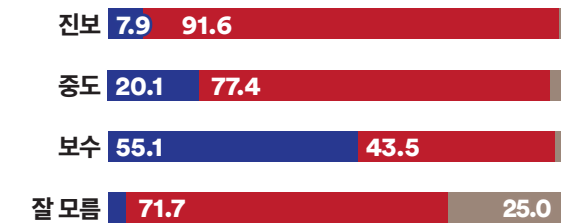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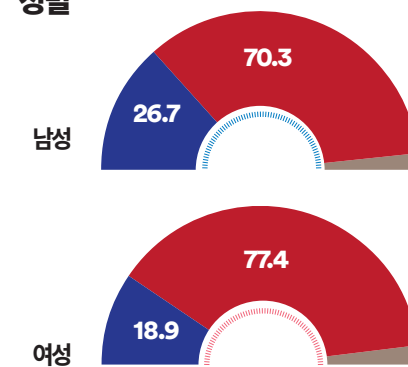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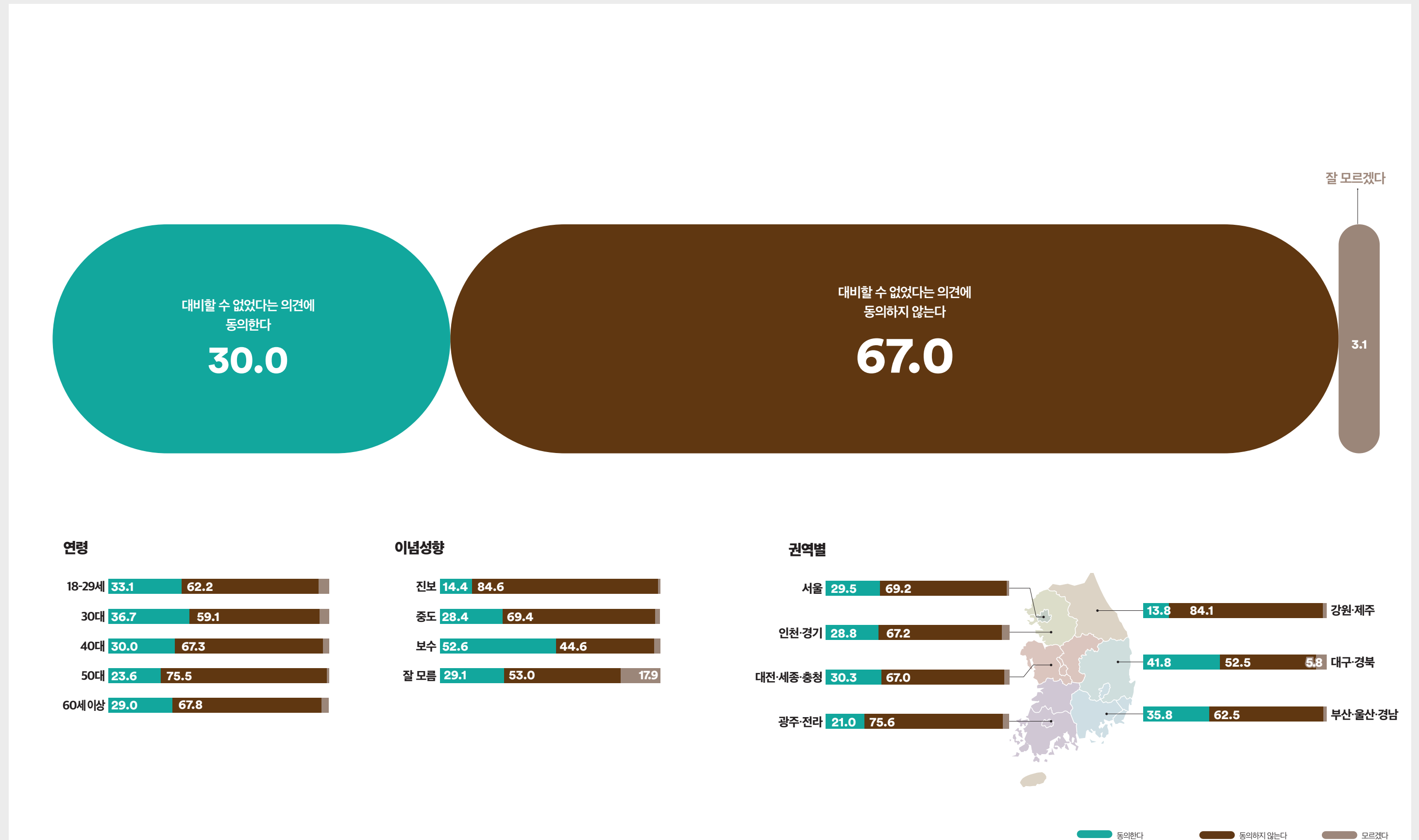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모르겠다

10.29 참사

원인: 주최자 없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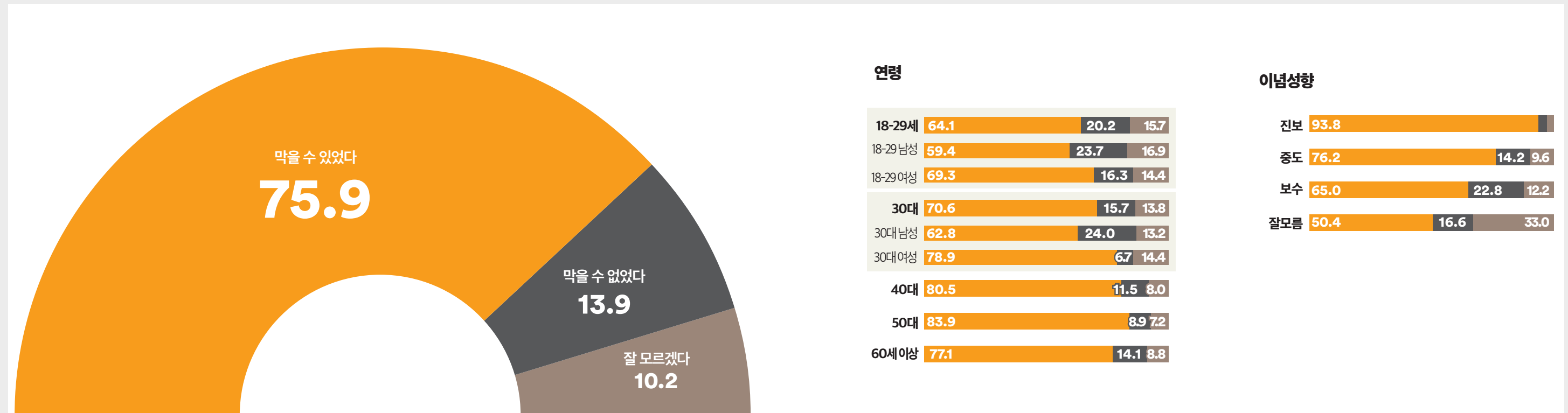
Q. 할로윈에는 주최자가 없기때문에 10.29 참사를 미리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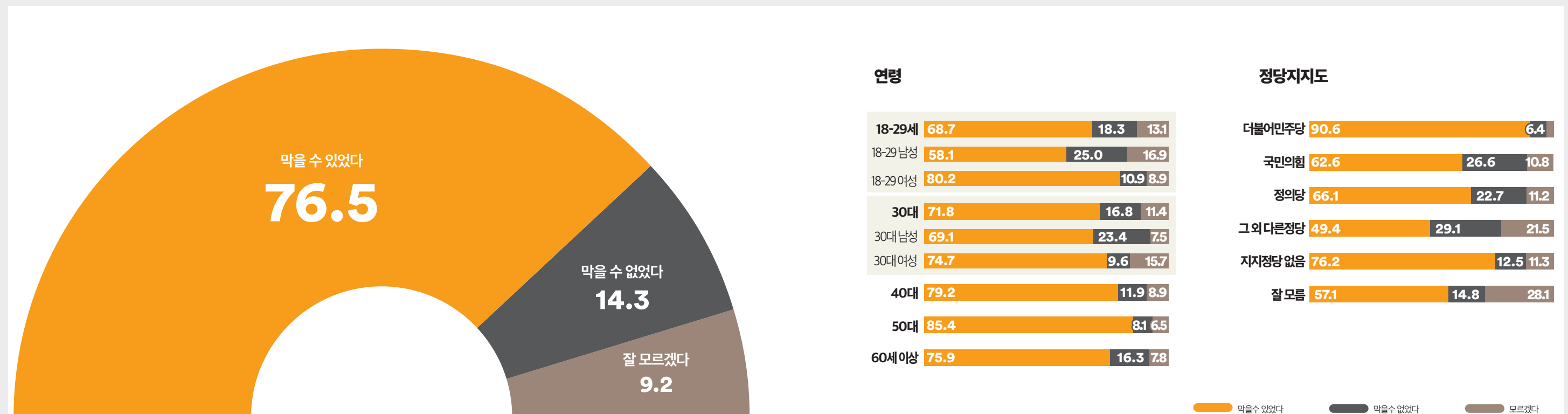
10.29 참사

원인: 안전 대책

Q.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했다면 10.29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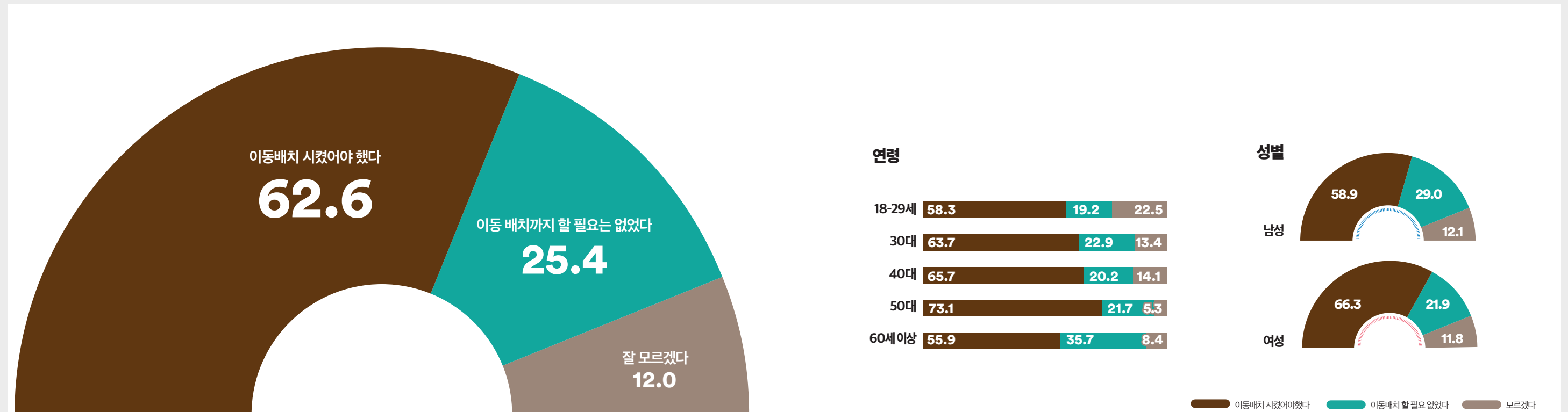
Q. 10.29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112 신고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경찰 기동대 투입 등 신속히 대처 했다면 10.29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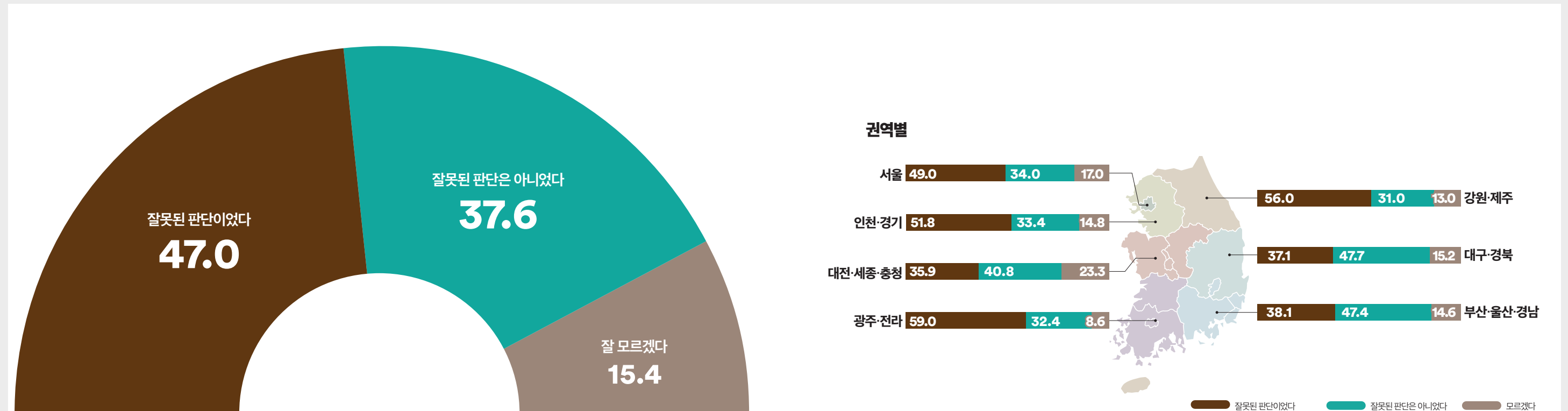
10.29 참사

원인: 경찰 인력이 집중된 곳

Q. 10.29 참사 당일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나 용산 대통령실에 배치되었던 경찰 기동대를 참사 현장으로 이동 배치 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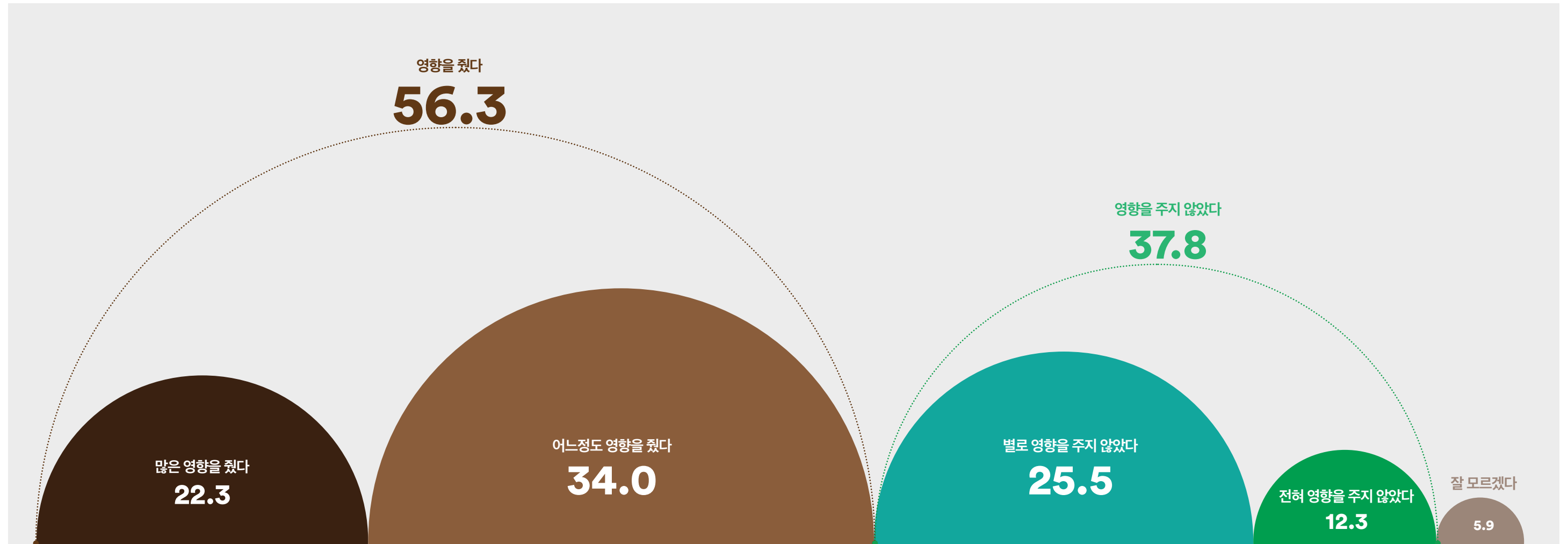
Q. 경찰 지휘부는 이태원에서 마약 단속에 치중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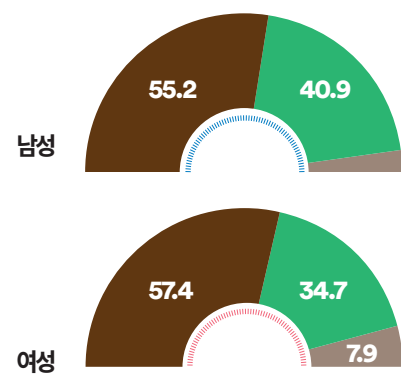
10.29 참사

원인: 마약 단속에 집중된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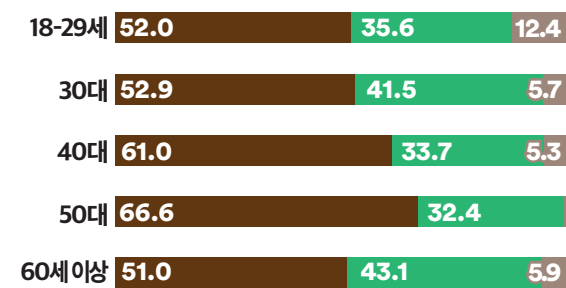
Q. 경찰의 마약 단속 치중이 10.29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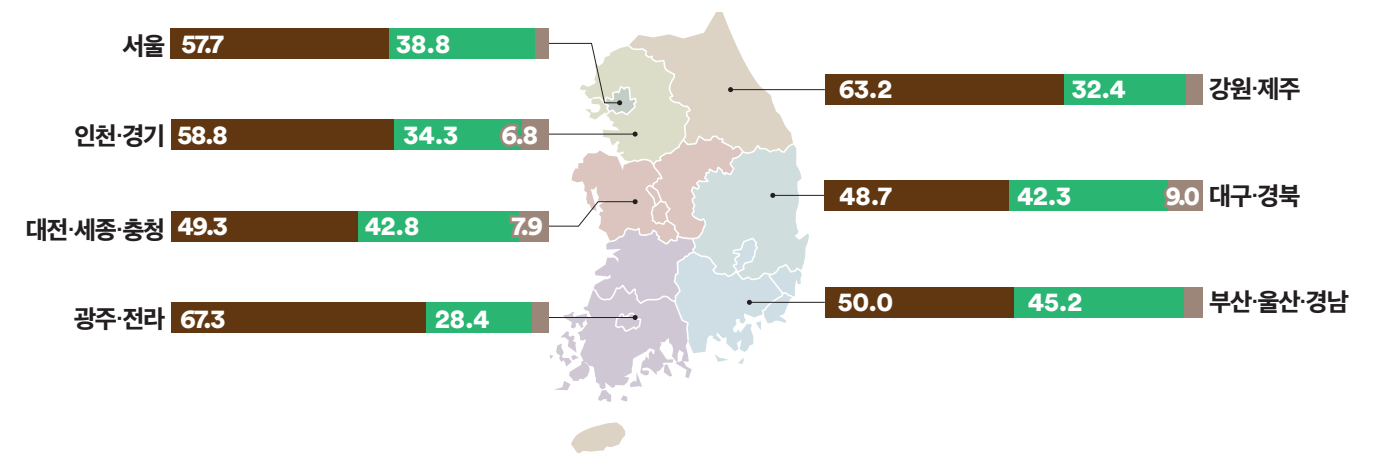
성별



연령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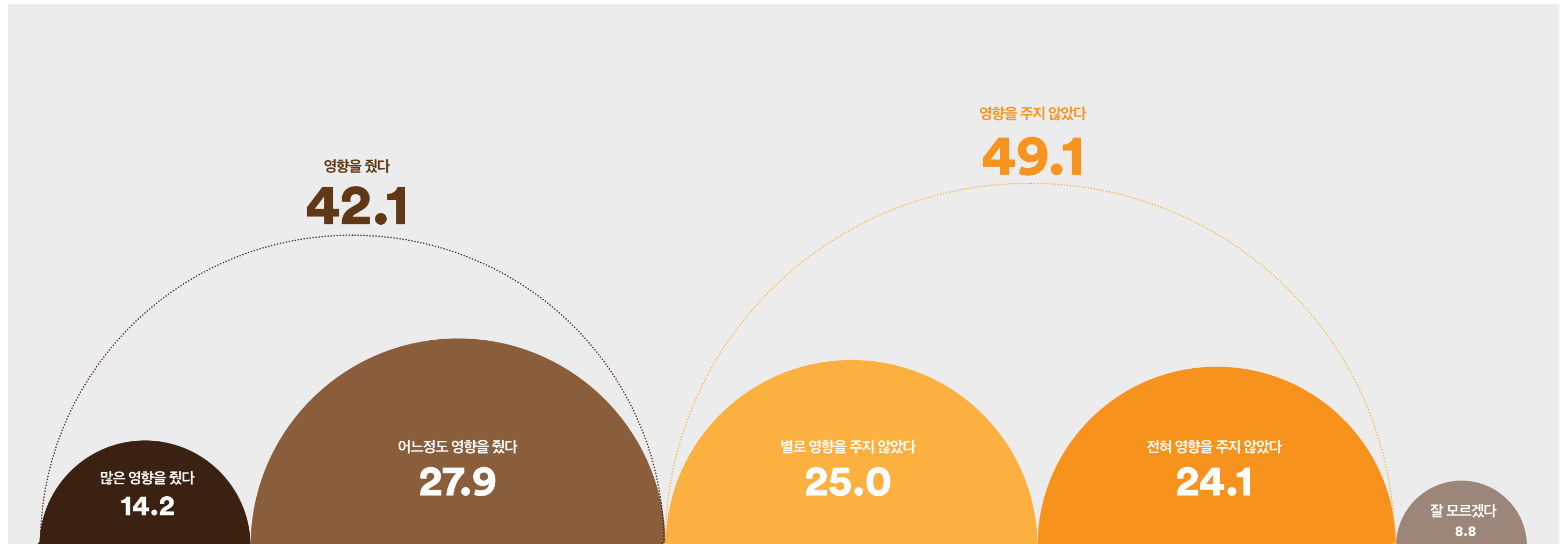
영향을 줬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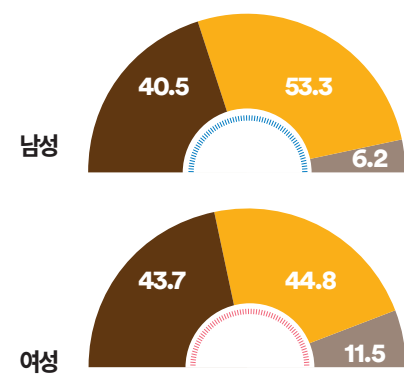
10.29 참사

원인: 촛불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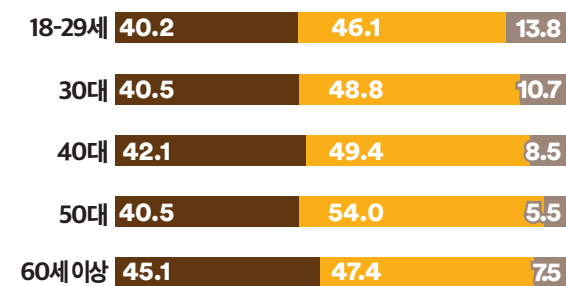
Q. 10월 29일 진행되었던 촛불집회가 이번 10.29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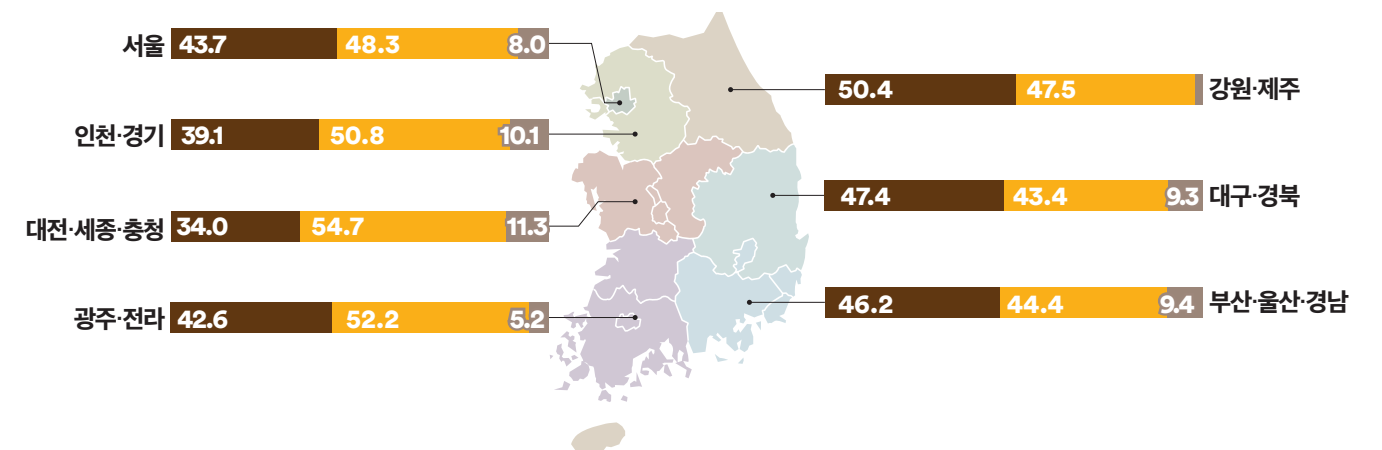
성별



연령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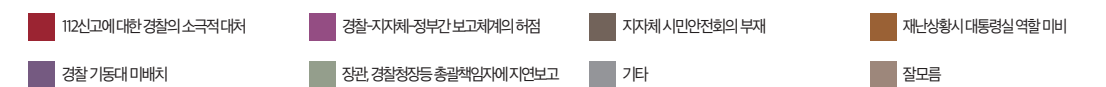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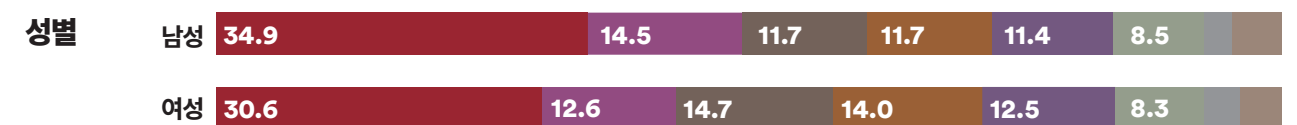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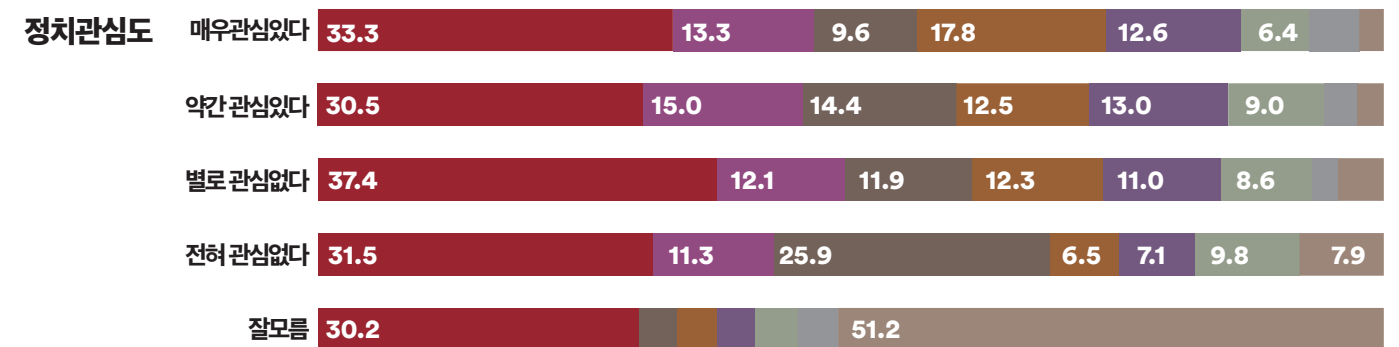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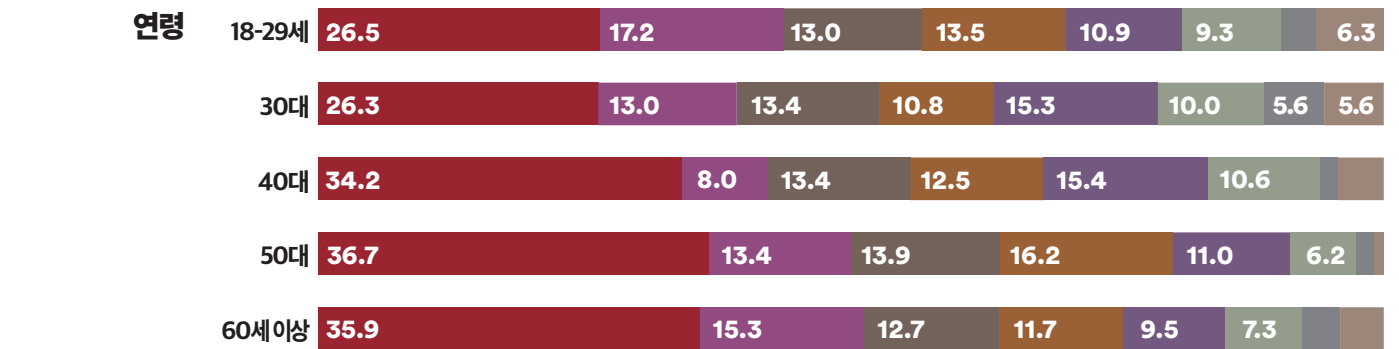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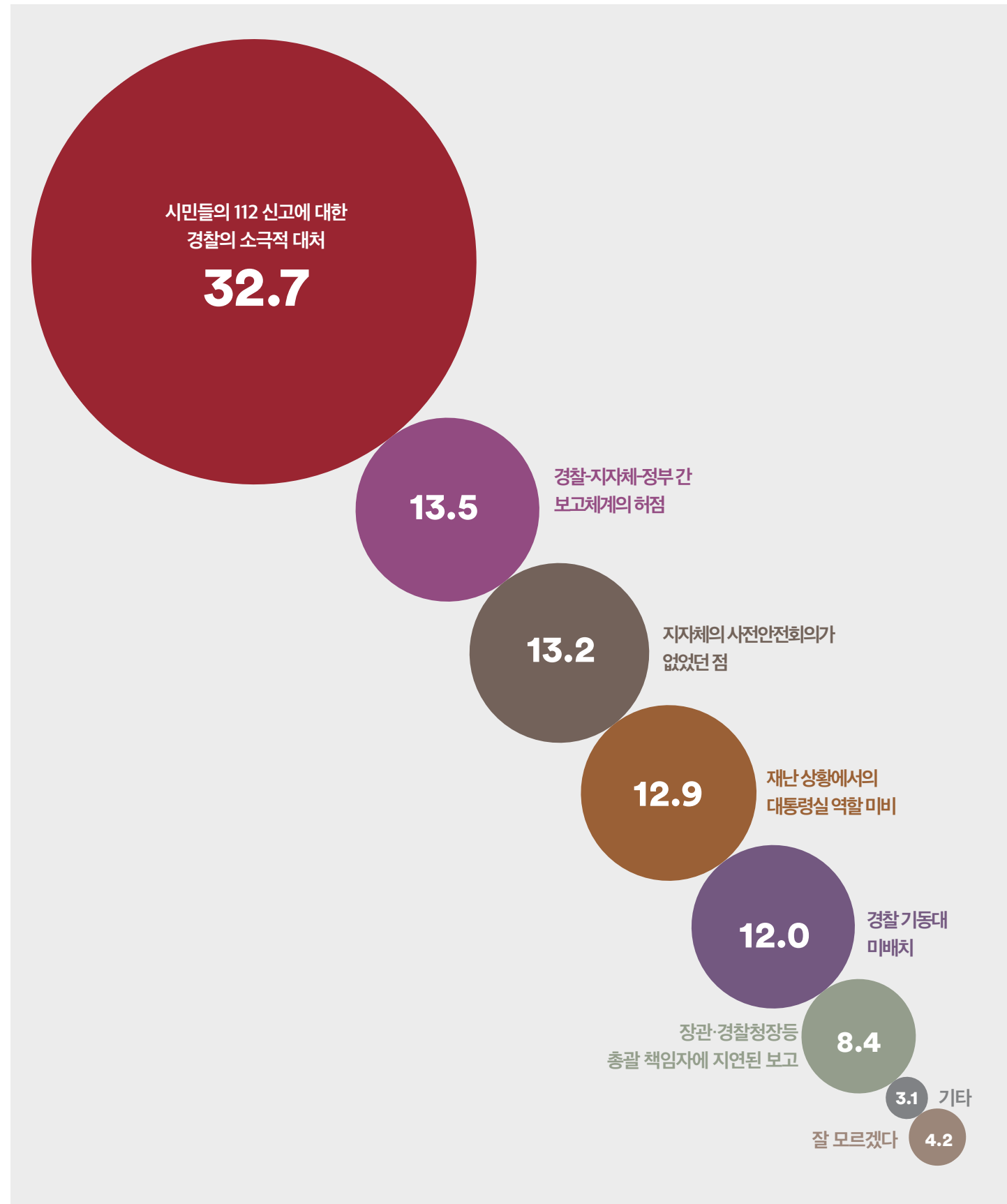
영향을 줬다 |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모르겠다



10.29 참사

대응: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사전/당일 조치

Q. 10.29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당일 조치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10.29 참사

대응: 국가의 재난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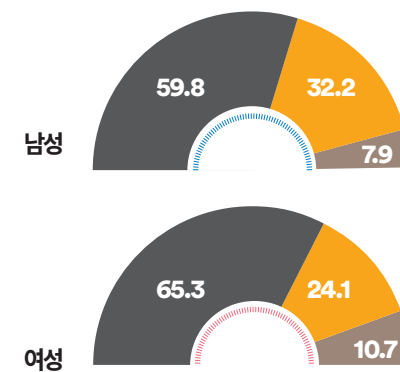
Q. 이전 정부와 비교할때 현 정부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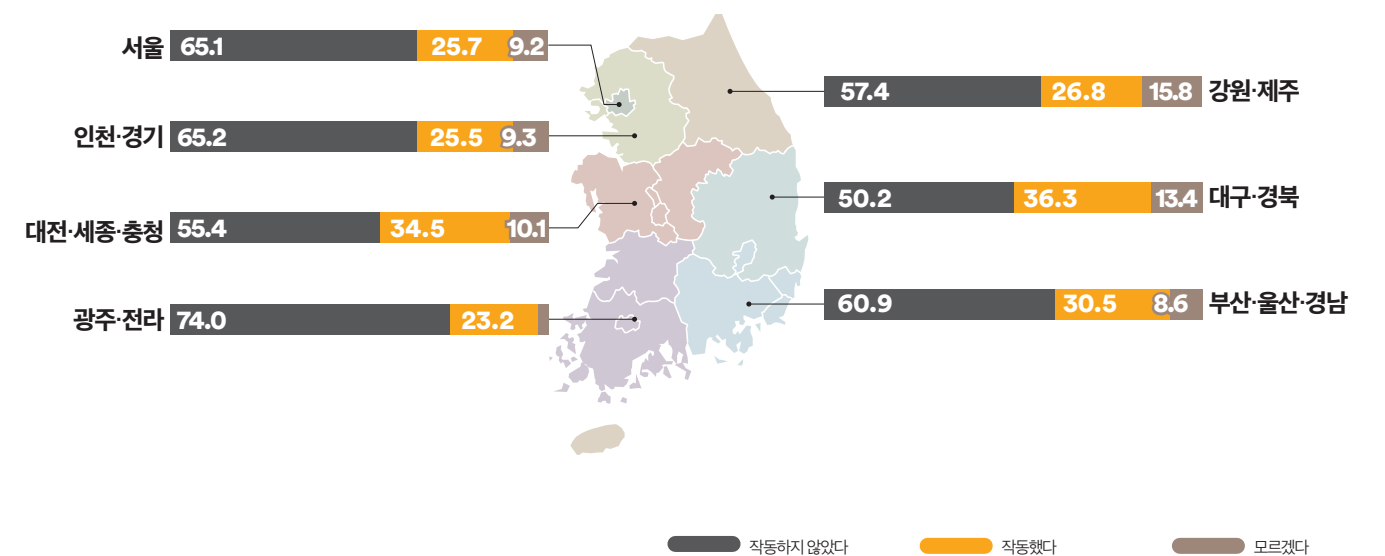
연령

18-29세	58.0	27.7	14.3
18-29 남성	44.9	41.6	13.6
18-29 여성	72.3	12.6	15.2
30대	59.8	27.4	12.8
30대 남성	50.0	37.8	12.2
30대 여성	70.4	16.1	13.5
40대	69.1	22.0	8.8
50대	74.7	19.9	5.3
60세 이상	54.7	37.7	7.6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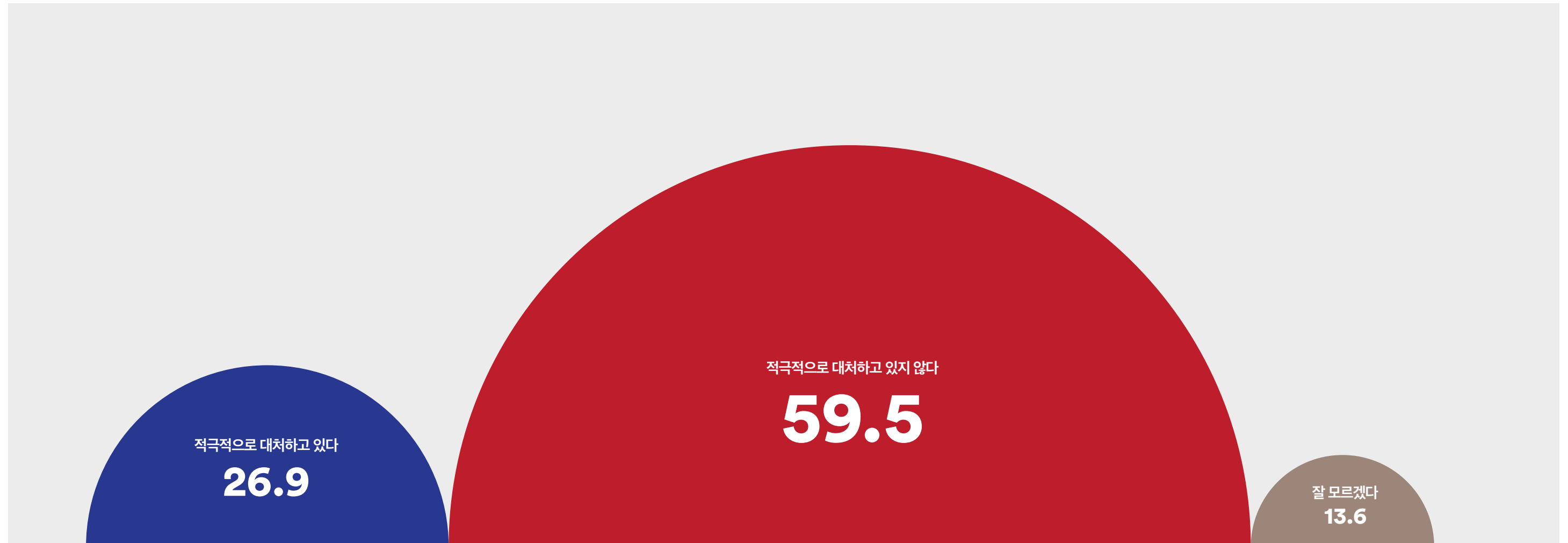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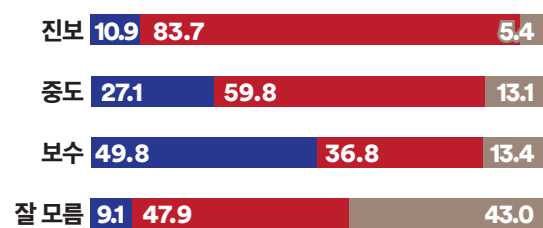
10.29 참사

대응: 정부의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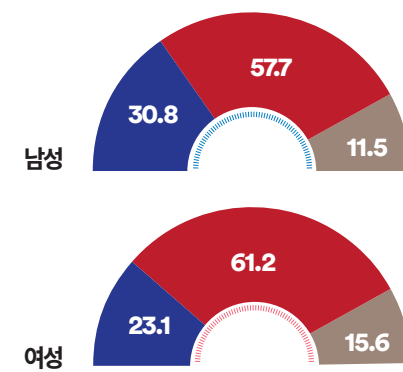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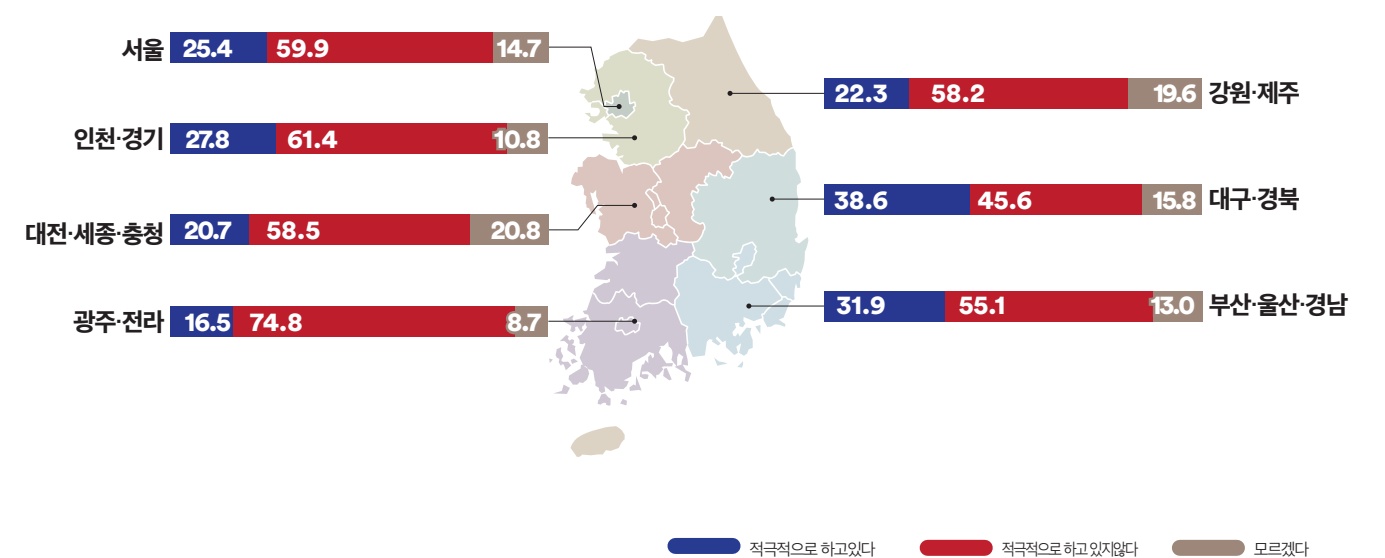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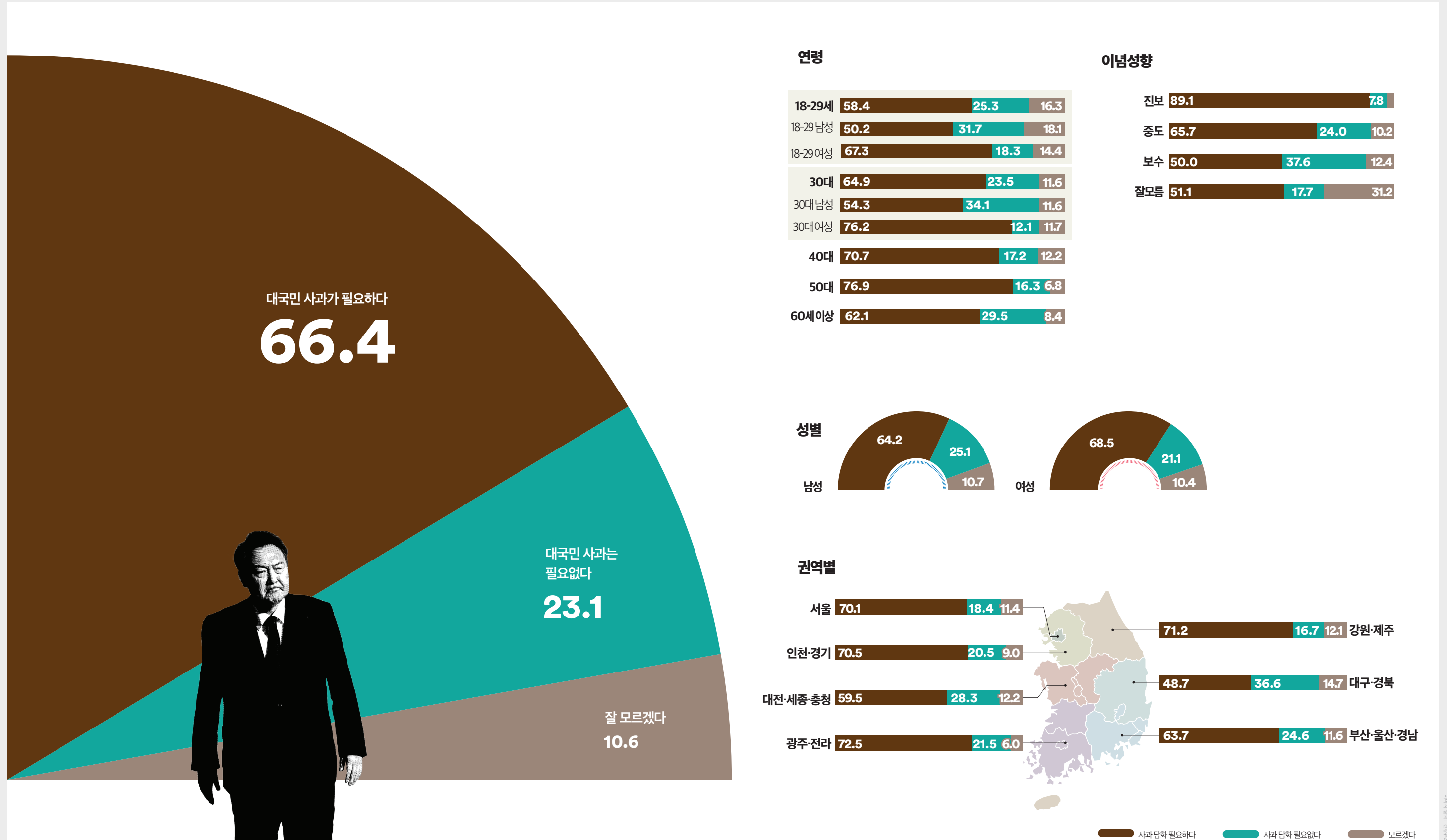
권역별



10.29 참사

대응: 대통령 담화형식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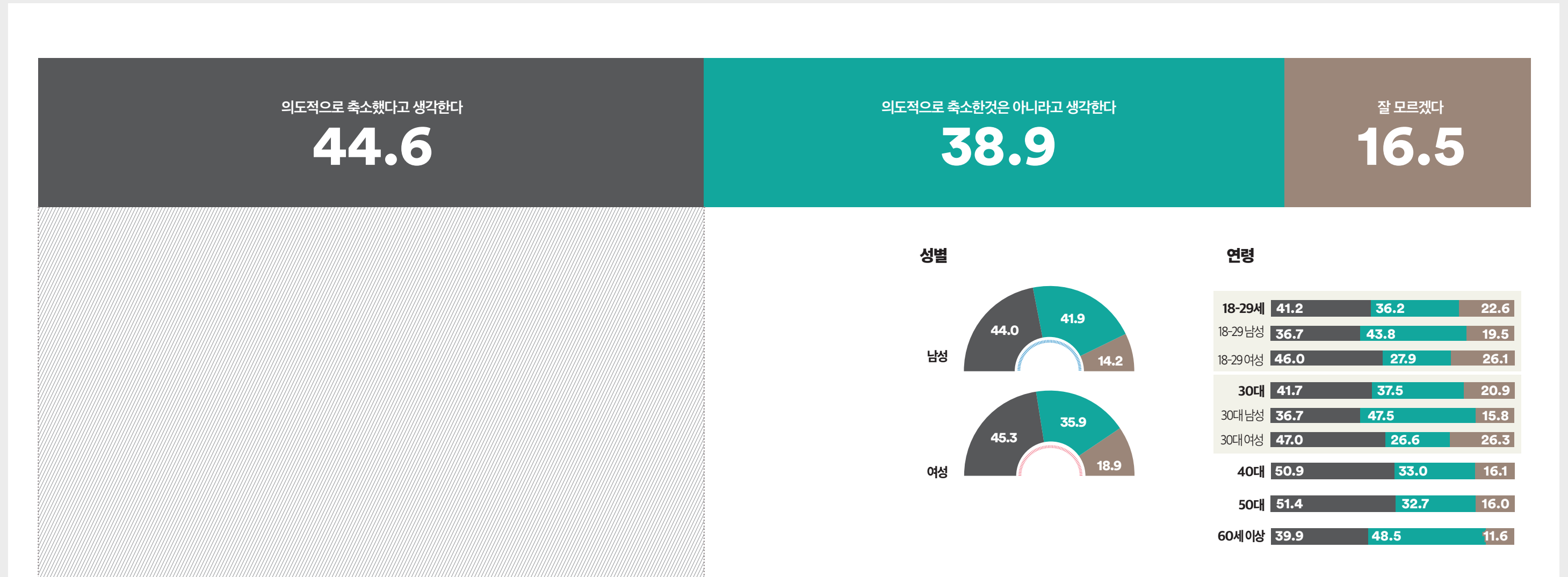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와 관련하여 종교 행사에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29 참사

대응: 추모 열기 의도적 축소 의혹

Q. 윤 정부가 10.29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추모 열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축소했다고 생각한다 ■ 축소한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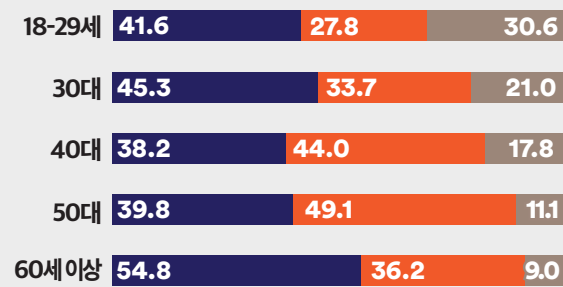
10.29 참사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참사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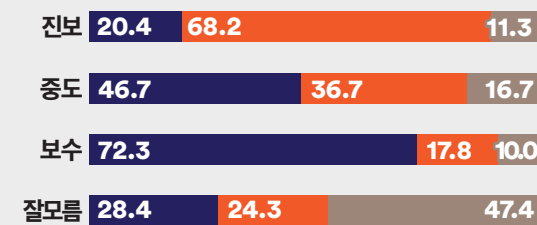
Q.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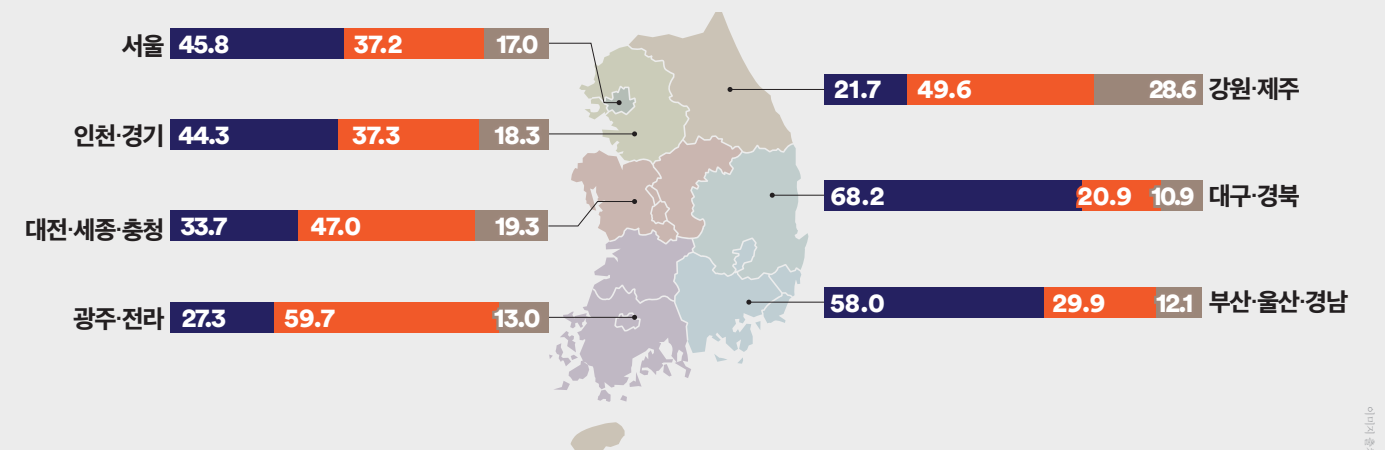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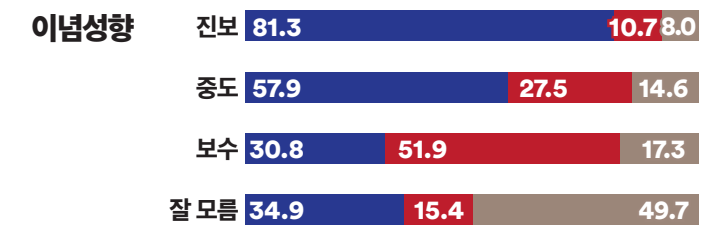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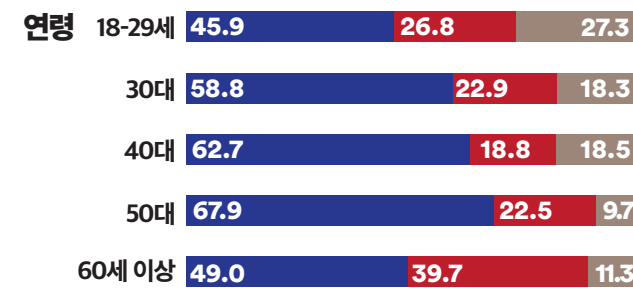


정쟁화 하고있다 정쟁화 하는건 아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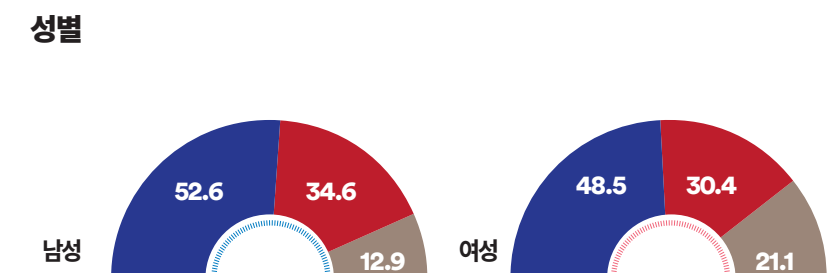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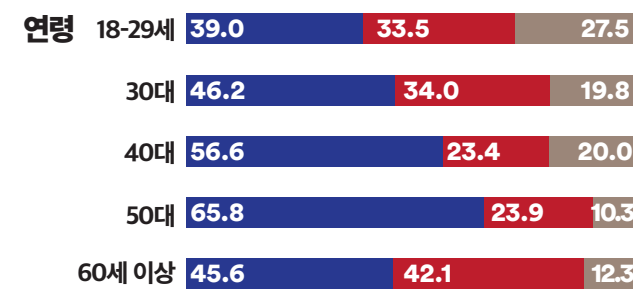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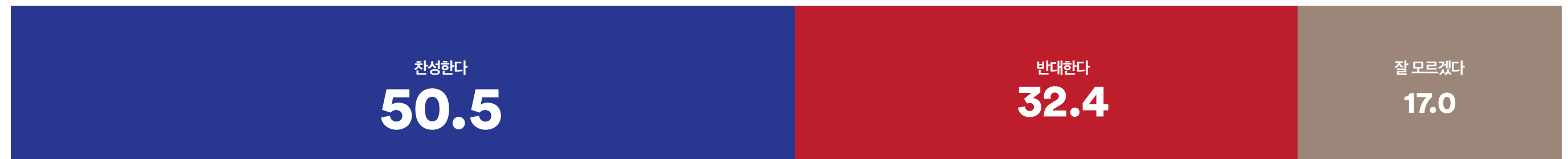
10.29 참사

대응: 국정조사와 특검

Q.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10.29 참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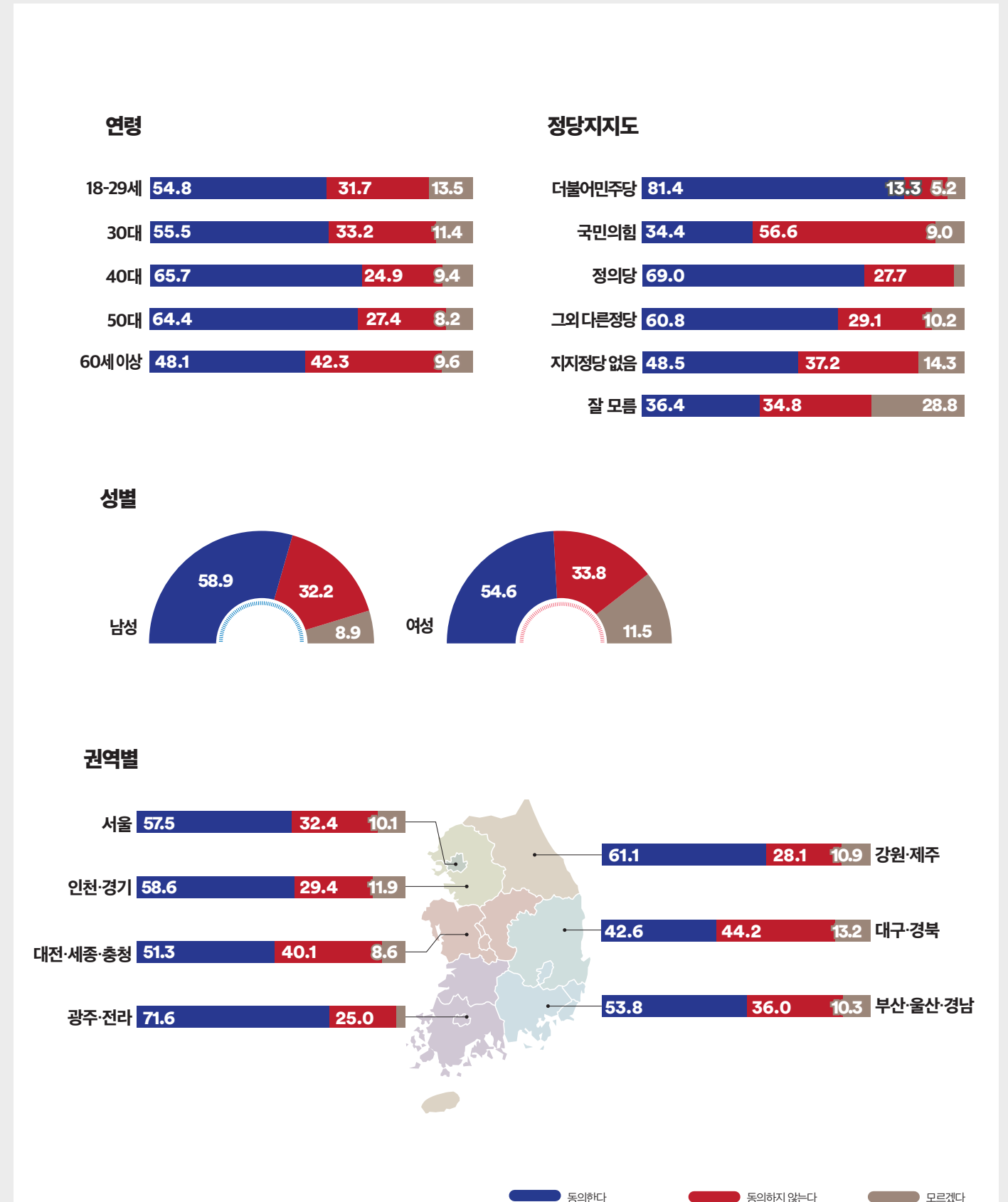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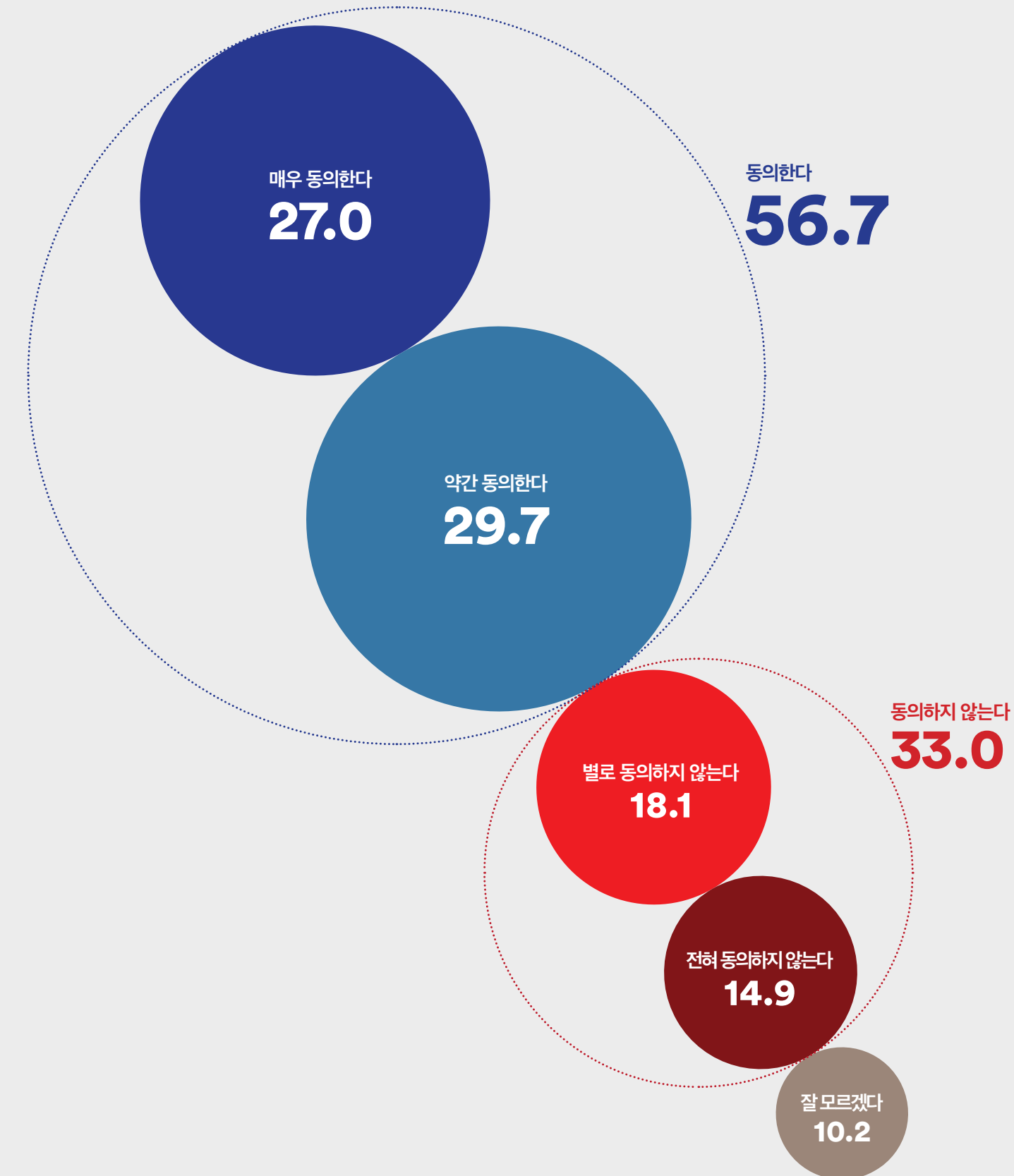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르겠다



10.29 참사

대응: 희생자 명단 공개

Q. 영정사진과 위패 없는 분향소에서의 조문은 제대로 된 조문이 아니므로, 유가족의 동의하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제대로 추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5차 정례여론조사 ARS+WEB 보고서

www.flowerresearch.com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